

2020년 봄호

연구방법논총

Journal of Research Methodology

【연구논문】

- 보육교사의 감정반응과 정서지능의 조절효과에 따른 상호작용활동의 한계
김영희 · 김성희 / 1
-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전략에 관한 연구
김재호 · 민정훈 / 33
- 우울증 시병탐지를 위한 벤더게슈탈트검사의 효용성
조양희 · 최성진 / 57
- 여성장애인전문복지관 이용경험 연구
박시은 · 전지혜 / 79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차 례

【연구논문】

보육교사의 감정반응과 정서지능의 조절효과에 따른 상호작용활동의 한계 김영희·김성희 / 1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전략에 관한 연구 김재호·민정훈 / 33
우울증 사병탐지를 위한 벤더게슈탈트검사의 효용성 조양희·최성진 / 57
여성장애인전문복지관 이용경험 연구 박시은·전지혜 / 79
『연구방법논총』원고작성의 일반적 요령 119
『연구방법논총』저술 윤리강령 126
『연구방법논총』편집 및 심사 규정 128
『연구방법논총』편집위원명단 132

Journal of Research Methodology

| 2020 Spring Vol.5, No.1 |

- The Emotional Response of Nursery Teacher and the Effect of it on Interaction Activity Limited by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Young Hee Kim · Sunghye Kim / 1
-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Strategy to North Korean Contingencies
Jaeho Kim · Jeonghun Min / 33
- The Utility of the Bender Gestalt Test to Detect Malingered Depression
Yang Hee Jo · Seong Jin Choi / 57
-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Female Disabled People's Welfare Centers
Siyeon Park · Jihye Jeon / 79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Institute for Basic Social Science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0.3.5.1.1>

【연구논문】

보육교사의 감정반응과 정서지능의 조절효과에 따른 상호작용활동의 한계*

김영희**·김성희***

논문요약

본 연구는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바탕이 되는 보육교사의 감정반응과 정서지능에 따른 상호작용활동의 한계를 조사하여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과 영유아 중심의 보육정책에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239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바람직한 감정반응 수준은 높지 않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감정반응 방식은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반응은 높았지만 문제보다 감정에 관심을 보이는 반응은 낮았고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반응 수준은 높지 않았다. 둘째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은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감정반응이 바람직할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지능에 따른 조절효과가 유의하여 정서지능이 높은 경우에는 바람직한 감정반응이 많아지면 긍정적인 상호작용활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바람직한 감정반응을 향상시키는 자질 향상 교육과 소진감을 감소시키는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할 뿐 아니라 스웨덴의 보육정책처럼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여 모성과 부모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주제어: 보육교사, 감정반응, 정서지능, 상호작용

* 이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순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소비자·가족아동학과 석사학위자.

***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트랙 교수, 교신저자.

I. 서론

여성의 취업증가와 양육을 지원할 인적자원의 부족, 영아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적 욕구의 증가,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영유아 양육이 부모에게서 보육교사로 대체되고 있다. 보육시설은 2008년 33,499개에서 2018년 39,171개로 증가하였고, 보육교직원 수는 2008년 175,729명에서 2018년 333,420명으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2018년 영유아추계인구의 약 55%에 달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보육시설의 종류는 영아전담 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 시간연장 어린이집, 휴일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등으로 다양해져서(보건복지부 2018), 부모는 영유아를 더 오랜 시간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취업모 뿐 아니라 비취업모도 보육시설 이용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영유아를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맡긴 취업모는 2017년에 51.5%였고, 비취업모도 34.1%였다(통계청 2017). 최근에는 저출산 대책으로 양육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더 많은 영유아가 더 많은 시간을 보육교사와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양육되는 것에 대해 비덜프(Biddulph 2007)는 영유아기는 두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이때 애착형성에 문제가 생기면 전두엽 미발달로 문제행동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보육시설에서 자랄 경우 욕구불만과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적어도 3세까지는 어머니가 사랑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에인스워스 외(Ainsworth et al. 1978)도 3세까지는 애착이 발달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양육자와 안정적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후 건강한 발달을 이루기 어렵다고 보았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한 시의 경우 영유아 10명 중 2~3명 정도가 정신건강 상에 문제를 갖고 있었다(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2012). 이에 대해 전문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지나치게 일찍 집단생활에 노출되는 것을 원인의 하나로 꼽았다(레이디경향 13/05). 비덜프(Biddulph 2007)에 따르면 증가하는 아동·청소년의 약물문제,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보육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보육교사의 높은 이직률과 적절한

지 않은 반응, 또래와의 경쟁 등 열악한 보육환경이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영유아에게는 무엇보다 사랑으로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모성이 필요하지만 기혼여성의 취업과 교육열 등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돌봄으로 대체되고 있어 교사의 자질이 중요해지고 있다.

영유아가 건강하게 뇌를 발달시키려면 애착이 필요하다고 비덜프(Biddulph 2007)는 강조한다. 최성애 외(2012)도 영유아는 생후 초기에는 감정이 미분화 상태이지만 어머니와의 감정교류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애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감정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보육교사와 지내는 시간이 많은 영유아에게는 어머니뿐 아니라 보육교사의 감정반응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에는 축소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코칭형 네 가지가 있다(최성애 외 2012; Gottamn et al. 2007).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감정조절 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발달시키려면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감정코칭형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모는 감정을 축소하고 관심을 전환시키는 축소전환형, 감정을 바꾸거나 억제하는 억압형, 감정에는 관심이 없는 방관형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보육교사의 감정반응도 부모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육교사의 감정반응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보육교사의 자질을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보육교사의 감정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공감능력으로 연구되고 있다(김명신 2017; 차혜정 외 2017; 최연정 2016; 지성애 외 2015; 박진성 2015). 공감능력이란 타인의 심리상태와 감정을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를 말한다(이선미 2014). 공감능력의 개념은 감정반응 방식 중의 하나인 감정코칭형과 유사하므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감정 지각 여부를 파악하는 연구에는 유용하나 감정반응 방식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감정코칭에 대한 연구 대부분은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 반응의 질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육교사의 감정은 정서지능으로도 연구되고 있다(이윤주 2016; 나수지 2015; 이민영 2015; 연보라 2014).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평가해서

대처하고 활용하는 인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정서지능이 높으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윤주 2016; 연보라 2014; 이민영 2015).

그러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정서노동 강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고(김주희 2018; 임영미 외 2016), 정서노동은 소진감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김혜리 2015), 소진감은 상호작용활동과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이나영 외 2014). 이런 결과로 볼 때 정서지능은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만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영유아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을 경험한다. 보육교사와 시간을 보내는 영유아가 많아지고 있어 많은 연구들이 영유아 발달에 매우 중요한 긍정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고 있다(김명신 2017; 최연정 2016; 이경미 2012; 최미애 2000; Gottman et al. 1996; 김혜나 2011).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감정과 관련된 요인으로 정서지능 뿐 아니라 공감능력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결과로부터 보육교사의 감정반응도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모성에 대해 무한한 사랑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육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무한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업인으로서 보육교사에게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혜정 외 (2010)의 연구에서 영아반 보육교사는 영아의 발달 촉진에 필요한 적극적 상호작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을 편견이라고 보듯이 모성도 상황에 따라 변하기는 하나(Hrdy 2010), 스웨덴에서는 출산 후 부모에게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여 시설보육보다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가족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다(연합뉴스 17/11/14; 권정운 외 2005).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시설보육보다는 모성과 부모양육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영유아에게는 무엇보다 모성과 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부모는 시설보육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취업모의 영유아의 경우 통계청(2017) 조사에 의하면 부모가 돌보는 경우는 31.4%인데 비해 어린이집과 놀이

방 이용률은 51.5%였다. 2019년에 직장인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부모는 63.5%나 되었다(연합뉴스 19/07/01).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고 비취업모의 경우도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초점을 두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육교사의 감정반응과 정서지능,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에 대해 조사해보고자 한다. 보육교사의 감정반응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바람직한 감정반응은 외현적으로 표현되는 상호작용활동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모성에게 기대하듯이 긍정적인 상호작용활동을 무한히 증가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한계가 있는지 정서지능의 조절효과를 통해 조사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영유아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보육교사의 자질과 환경 개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유아 중심의 보육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감정반응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보육교사의 상호작용활동과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무엇인가?

셋째, 보육교사의 감정반응과 정서지능은 상호작용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보육교사의 감정반응과 상호작용활동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은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상호작용활동의 개념 및 관련 연구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이란 교수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영유아 간 의사소통(최미애 2000) 또는 교수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영유아의 모든 접촉(안상미 2002),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김수현

2015)으로 정의된다. 영유아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의 질서와 규칙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경험을 확장하며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방법을 학습한다(이경미 2016; 서유현 2002).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면 영유아는 교사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고 인지적으로 유능하게 놀이에 참여하며 또래관계도 친숙하고 사회적 참여도 적극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발달을 보인다고 한다(Howes et al. 1995). 영유아의 경험은 대부분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상호작용은 보육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된다(보건복지부 외 2016).

교사와 영유아간 상호작용 유형은 정서적, 언어적, 행동적 상호작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유재령 2014; 이정숙 2003). 긍정적, 부정적 상호작용으로도 분류된다(장현주 2004). 정서적 상호작용은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대하거나 개별적인 요구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적 상호작용은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가르침을 제공하고, 개방적인 질문을 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말하며 행동적 상호작용이란 스킨십 행동과 보여주기, 눈높이 자세 등의 신체표현을 통해 영유아들이 긍정적인 행동을 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상호작용은 허락, 칭찬, 격려, 미소 짓기, 긍정적 신체표현, 긍정적 반응, 시범 또는 설명하기를 말하며 부정적 상호작용은 비난이나 벌주기, 무반응, 일방적인 지시, 명령 등을 말한다. 김은옥(2013) 연구에서 질이 높은 교사는 영유아에게 친절하고 반응적이며 함께 하는 활동이 많은 긍정적 상호작용을 보였지만, 질이 낮은 교사는 규칙을 강조하고 영유아와의 놀이에 적게 참여하는 부정적 상호작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요인을 보면 교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정다워 2007),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가 상호작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미성 외 2013; 김남희 외 2016). 하용금(2018) 연구에서는 연령이 많은 40세 이상의 교사가 높은 상호작용을 보였지만 최연정(2016)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은 교사의 정서표현이 유의하게 높았다. 임영미 외(2016)의 조사에서 상호작용은 연령, 결혼유무, 학력, 근무기관, 근무경력에서 부

분적인 차이를 보였고 박경화(2018)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은 결혼유무, 근무시간, 담당 영유아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조하경(2017) 연구에서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은 기관유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 경력, 학력, 학급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상호작용은 정서노동과 관련이 있었는데 김수연(2015) 연구에서는 정서노동을 실제적 정서를 억제하거나 외현적 정서를 가장하는 표면행동과 실제적 정서와 외현적 정서를 동일시 하는 내면행동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표면행동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내면행동은 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문희(2013) 연구에서 상호작용은 정서노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정서노동이란 조직에서 요구하는 정서를 직무의 일환으로 관리하여 표현하는 정서적 행위(Hochschild 1983), 상호작용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상호작용은 소진감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이나영 외 2014) 상호작용이 많아질수록 소진감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보육교사의 상호작용에 정서지능 뿐 아니라 공감능력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신 2017; 최연정 2016).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을 언어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영유아와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 및 행위라 정의한다. 영유아기는 아직 인지발달이 미숙한 시기로 애정을 추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시기이다. 따라서 보육교사가 외현적으로 표현하는 상호작용이 애착형성에 중요하므로 상호작용 중 외현적으로 표현되는 상호작용을 상호작용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상호작용활동에 대한 감정반응, 정서지능, 학급연령, 교사의 경력, 학력, 연령, 월평균 급여, 결혼여부의 관련성 및 영향력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2. 감정반응의 개념 및 관련 연구

감정에 대한 연구는 지노트(Ginott 1969)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상담하면서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시작되었다. 지노트(Ginott 1969)의 감정을 중시하는 시각은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대처해야 하는지를 돕는 코안 외(Coan et al. 2007)와 가트만 외(Gottman et al. 2007)

의 부모됨의 연구로 체계화되었다. 이는 최성애 외(2012)의 감정코칭 연구로 이어졌다.

가트만 외(Gottman et al. 2007)는 부모가 자녀의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에는 4가지 유형 즉 축소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코칭형이 있다고 주장한다. 축소전환형은 자녀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관심을 돌리려 하거나 무시하는 형이고, 억압형은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보이면 자녀의 감정을 꾸짖거나 혼계해서 그러한 감정을 갖지 못하게 하는 형이다. 방관형은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도 내버려두고 감정보다 문제를 중시하는 형으로 축소전환형과 억압형, 방관형은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반응 방식이다.

바람직한 감정반응은 감정코치형으로 자녀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감정도 표현하도록 수용하고 이해하고 위로한다. 이러한 부모는 자녀와의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고 친밀감을 높일 수 있으며 자녀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동의 한계를 정해 주므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또래관계와 학습능력, 집중력,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킨다(최성애 외 2012).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위로하는 감정반응을 나타내는 감정코칭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어머니나 교사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연구되고 있다. 감정코칭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고(백승선 외 2017; 박지은 201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최경화 외 2016; 최우미 2015), 교사-유아 간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김희정 외 2018), 유아 문제행동 감소와 소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성애 2012). 이처럼 감정코칭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험연구로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감정반응 방식의 실태를 알기는 어렵다.

감정코칭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감정반응 방식을 의미하므로 유사한 개념인 공감능력으로 연구되고 있다(김명신 2017; 차혜정 외 2017; 최연정 2016; 지성애 외 2015; 박진성 2015). 공감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동정과 달리 자신에게로 전하는 과정을 말한다. 또한 공감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인과 분리된 경험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서적인 면에서 하나가 되는 감정이입과 다르다(박성희 2004). 이선미

(2014)는 공감을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심리상태와 감정을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감능력은 로저스(Rogers 1957)가 치료적 변화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되었다. 데이비스(Davis 1980)는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대인관계 반응성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개발하였는데 공감능력을 인지와 정서가 상호관련된 체제로 보고 타인의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를 인지적 공감으로, 관심과 고통 나누기를 정서적 공감의 하위 요소로 보았다. 최근에는 인지와 정서뿐 아니라 표현적 측면까지 통합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최지민 2015). 감정코칭도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서적 인지적 개념이면서 적절한 행동으로 표현하게 하므로 표현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감정코칭형의 감정반응과 유사한 개념인 공감능력은 인간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대인관계의 갈등을 해소하며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것을 예방해서 관계를 공고히 하는 기능을 한다(이선미 2014). 타인을 배려하고 이타적 행동을 하게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하고(조효진 2006),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더 받을 수 있게 하므로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기도 한다(이상은 2009). 감정코칭은 공감능력과 유사하므로 인간관계에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긍정적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바람직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감능력은 인간관계 뿐 아니라 유아교사의 행복감, 인성,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박진성(2010)의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은 행복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은아(2016)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이 예비유아교사의 인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통제하여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을 함양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권정숙 외 2016).

공감능력은 교사 뿐 아니라 유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하영례 외(2013)의 조사에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공감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교사 자신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교사의 행동이 공감적인 태도로

변화하였고 유아에게 수용, 배려, 통찰의 과정을 거쳐 유아의 의견존중, 정서적 애정행동, 유아와 활동을 공유하는 등의 행동변화가 나타났다. 교사의 공감능력이 유아와의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때 감정코칭의 감정반응 방식도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감정반응의 한 유형인 감정코칭과 유사한 개념인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감능력은 감정을 타인의 입장에서 지각하는지의 여부만을 파악하므로 다른 감정반응 방식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감능력에는 감정코칭형 반응 외에 축소전환형, 억압형, 방관형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감능력으로는 바람직한 감정반응의 실태를 알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정반응을 타인의 감정에 대해 축소전환적, 억압적, 방관적, 감정코칭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문제해결이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라 정의하고, 보육교사의 감정반응은 어느 정도 바람직한지 반응 방식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또한 교사의 공감능력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김명신 2017; 최연정 2016), 감정반응도 공감능력과 유사하게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으므로 보육교사의 감정반응이 상호작용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서지능은 감정반응과 상호작용에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정서지능에 따라 감정반응이 상호작용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조절효과를 통해 조사해보고자 한다.

3. 정서지능의 개념 및 관련 연구

정서지능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 살로비 외(Salovey et al. 1990)는 정서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 그러한 정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살로비 외(Salovey et al. 1990)는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을 평가와 표현, 조절, 활용으로 보았던 반면 골드만(Goleman 1995)은 정서지능을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좌절 상황에서 인내하고 기분을 조절하며 타인의 정서를 공감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여 하위요인을 자기인식, 자기조절, 자기 동기화, 공감, 그리고 사회적 기술로 구분하였다.

정서지능은 정서와 인지가 통합된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정옥분 외 2007), 정서와 관련되어 있으나 지적인 능력을 성장시키고 개인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지능의 한 측면으로 보기도 한다(조영옥 2015). 이런 관점에서 송미선 외(2009)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인지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행동함으로써 직면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서지능은 교사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직무수행과 교수행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이병선 2015). 다양한 보육환경에서 영유아를 포함한 타인의 정서적 표현을 이해하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유지하게 하므로 교사의 역할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최현미 외 2009). 조혜진 외(2012)의 연구에서 정서지능이 높은 교사는 신체접촉, 눈 맞춤, 칭찬과 격려 등 애정적 상호작용의 빈도가 정서지능이 낮은 집단과 비교하여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주(2016), 나수지(2015), 이민영(2015), 연보라(2014)연구에서도 영유아 교사의 정서지능은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과 긍정적 관계가 있었다.

정서지능이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박은영 외(2011) 연구에 의하면 유아교사 자신의 감정을 가장해서 나타나는 표면적 행동보다 자연적 행동과 내면적 행동을 많이 하는 교사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나타냈다고 한다. 의도적인 감정반응은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주희(2018)와 임영미 외(2016)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이 높으면 정서노동도 잘 수행하고 자신의 정서와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할 때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송미선 외(2009)의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은 직무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김혜리(2015)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은 소진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에 따르면 의도적인 감정반응은 소진감과 스트레스를 높여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서지능이 높은 경우 의도적인 감정반응으로 인한 정서노동이 많아질 수 있고 높아진 소진감과 스트레스는 상호작용의

빈도와 강도를 조절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반응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정도 즉 정서지능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따라 다를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며 활용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라 정의하고, 정서지능은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감정반응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전남동부 지역 광양시의 어린이집 교사 300명을 임의표집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성실하게 응답한 239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광양시는 전남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생산인구가 많은 소비도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전문대 이상이 약 93%이상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박경화(2018) 조사에서 전문대 이상 학력의 보육교사 비중이 약 75%였고 보육교사양성과정수료자가 약 25%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보육환경은 타도시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담당학급은 만 1~2세(47.3%)가 가장 많았고, 근무경력은 2~4년(31.8%)이 가장 많았으며, 1년 미만(9.6%)이 가장 적었다. 교사의 최종학력은 전문대졸업(72.4%)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는 40대 이상(57.3%)이 가장 많았고 20대(12.6%)가 가장 적었다. 기혼(81.2%)이 미혼(18.8%)보다 많았고, 급여는 180만 미만(58.2%)이 가장 많았다.

〈표 1〉 보육교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담당학급	1세 미만 반	29	12.1
	1~2세 반	113	47.3
	3세 반	43	18.0
	4세~5세 반	54	22.6
근무경력	0~1년	23	9.6
	2~4년	76	31.8
	5~7년	61	25.5
	8~9년	33	13.8
	10년 이상	46	19.2
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	16	6.7
	전문대졸업	17	72.4
	4년제 대학졸업	46	19.2
	대학원 졸업 이상	4	1.7
연령	20대	30	12.6
	30대	72	30.1
	40대 이상	137	57.3
결혼여부	미혼	45	18.8
	기혼	194	81.2
급여	180만 미만	138	58.2
	180만~200만 미만	73	30.5
	200만~240만 이상	27	11.3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2018년 2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239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ver. 23을 이용하여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조사도구

1) 감정반응

최성애 외(2018)의 감정반응 유형에 대한 설문은 바네즈 외(Barnes et al. 1982)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에 기초하여 감정코칭 의사소통 척도를 작성한 김서영 외(2016)의 설문과 데이비스(Davis 1994)의 대인관계반응지수를 재구성한 김명신(2017)의 공감능력에 대한 설문지 중에서 감정반응에 관한 것을 선택하여 재구성하였다.

감정코칭형의 질문은 '나는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할 때 잘 위로해 준다' 등의 3문항, 축소전환형의 질문은 '나는 누군가 화를 내면 그의 감정을 무시한다' 등의 3문항, 억압형의 질문은 '나는 다른 사람이 기분이 나쁜 것 같으면 그의 기분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 등의 3문항, 방관형의 질문은 '나는 다른 사람이 기분이 나빠 폭언을 하면 무시하고 내버려둔다' 등의 3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감정반응을 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감정코칭형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부터 1점을 부여하였고, 축소전환형과 억압형, 방관형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역으로 1점부터 5점을 부여하였다.

김서영 외(2016)의 연구에서 감정코칭 의사소통 척도의 Cronbach's α 는 .94였고 김명신(2017)의 연구에서 공감능력 척도의 Cronbach's α 는 .83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감정반응의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2)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

하우즈 외(Howes et al. 1995)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정숙(2003)이 수정한 설문지를 이용한 김명신(2017)의 상호작용에 관한 설문지 중 영유아에게 외현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활동을 선택하여 재구성하였다. 정서적 상호작용활동 5문항, 언어적 상호작용활동 6문항, 행동적 상호작용활동 5문항 총 16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유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하우스 외(Howes et al. 199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69, 김명신(20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7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였다.

3) 정서지능

왕 외(Wong et al. 2002)가 개발하고 한지현 외(2005)가 번안한 WLEIS를 이용한 권혜진(2018)의 연구 중에서 자신의 정서 인식, 조절, 활용에 관한 문항 6문항, 타인의 정서 인식, 조절, 활용에 관한 문항 6문항 총 12문항을 선택하여 재구성하였다.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 지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Cronbach's α 는 권혜진(2018)의 연구에서는 .92였으나 본 조사에는 .89였다.

IV. 연구결과

1. 보육교사의 감정반응, 정서지능, 상호작용활동 실태

보육교사의 타인에 대한 감정반응은 평균으로 볼 때 보통 수준($M=3.55 \pm 0.47$)으로 바람직한 반응 수준은 높지 않았다. 김서영 외(2016)의 연구에서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감정코칭 의사소통 수준이 평균 3.07이었던 것과 유사하였다. 청소년기와 달리 영유아 시기는 양육자의 감정반응에 따라 애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보육교사의 바람직한 감정반응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감정반응의 하위영역을 보면 축소전환적 감정반응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3.78 \pm 0.72$). 보육교사는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억압적 감정반응

평균이 높아($M=3.51 \pm 0.73$) 보육교사는 타인의 감정을 바꾸거나 억압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위로하는 감정코칭적 반응은 평균보다 낮았다($M=3.50 \pm 0.59$). 하위영역 중 평균이 가장 낮은 감정 반응은 방관형이었다($M=3.40 \pm 0.67$). 방관형의 평균이 가장 낮다는 것은 보육교사는 타인의 감정보다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타인의 부정적 감정표현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감정반응 결과로 볼 때, 보육교사는 영유아 감정에 대해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으며 감정표현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하나, 영유아가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할 경우 감정보다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며, 감정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위로하는 것에는 관심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의 평균은 3.69 ± 0.47 로 권혜진(2018) 연구에서 정서지능의 평균이 3.797이었던 것과 유사하였다. 하위영역에서는 타인의 정서와 관련된 정서지능의 평균 3.51 ± 0.52 보다 자신의 정서와 관련된 정서지능 평균이 3.86 ± 0.49 로 높았다. 권혜진(2018) 연구에서 자기정서 인식이 타인 정서인식보다 높았던 것과 유사하였다.

보육교사의 영유아와의 외현적 상호작용활동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M=4.02 \pm 0.44$). 하위영역에서는 행동적 상호작용활동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M=4.16 \pm 0.47$), 다음은 정서적 상호작용활동($M=3.98 \pm 0.49$)이 높았으며 언어적 상호작용활동이 가장 낮았다($M=3.94 \pm 0.48$). 김명신(2017)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상호작용 평균이 4.18이었고 김남희 외(2016) 연구에서 평균이 4.03, 조하경(2017) 연구에서 3.91이었던 것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하위영역에서는 김명신(2017) 연구와 김남희 외(2016) 연구에서 정서적 상호작용의 평균이 가장 높았던 것과 달리 행동적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언어적 상호작용은 김명신(2017) 연구와 김남희 외(2016)과 조하경(2017) 연구와 유사하게 상호작용활동 수준이 가장 낮았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언어적 상호작용활동이 가장 부족하므로 감정 반응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보육교사의 감정반응, 상호작용활동, 정서지능 실태

	M±S.D	최소값	최대값
감정반응	3.55±0.47	2.00	4.83
감정코칭적	3.50±0.59	2.00	5.00
축소전환적*	3.78±0.72	1.00	5.00
억압적*	3.51±0.73	1.00	5.00
방관적*	3.40±0.67	1.00	5.00
정서지능	3.69±0.47	2.00	5.00
자기정서관련 지능	3.86±0.49	2.33	5.00
타인정서관련 지능	3.51±0.52	1.67	5.00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	4.02±0.44	2.88	5.00
정서적	3.98±0.49	3.00	5.00
행동적	4.16±0.47	3.00	5.00
언어적	3.94±0.48	2.33	5.00

*점수가 높을수록 비축소전환적, 비억압적, 비방관적 감정반응을 의미함

2.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과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

보육교사의 영유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은 교사의 연령과 결혼여부, 월평균 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표 3). 교사의 연령이 많은 집단과 기혼인 집단에서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이 더 많았으며 월평균 급여가 높은 집단에서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이 많았다.

하용금(2018) 연구에서 연령이 40세 이상 교사가 미만인 교사보다 적극적인 활동 참여, 경험의 다양성, 반응적 태도에서 유의하게 높은 상호작용을 보였던 것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박경화(2018) 연구에서 미혼이 기혼보다 상호작용이 많았던 것과 최연정(2016) 연구에서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정서표현이 유의하게 높았던 것과 다른 결과였다. 조하경(2017) 연구에서는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은 연령, 경력, 학력, 학급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표 3〉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과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

변인	범주	N	M	S.D	F/t (p)	Duncan
학급연령	1세미만반	29	3.95	.39	1.046 (.373)	-
	1-2세반	113	4.04	.42		
	3세반	43	3.95	.44		
	4-5세반	54	4.08	.52		
경력	0-1년	23	4.05	.40	.406 (.804)	-
	2-4년	76	3.99	.48		
	5-7년	61	4.07	.44		
	8-9년	33	3.97	.38		
	10년 이상	46	4.03	.47		
교사연령	20대(a)	30	3.90	.53	6.456 (.002)	a<b
	30대(a)	72	3.90	.42		
	40대이상(b)	137	4.11	.42		
결혼여부	미혼	45	3.84	.54	-2.532 (.014)	-
	기혼	194	4.06	.41		
월평균급여	180미만(a)	139	4.04	.44	3.318 (.038)	a<b
	180-200만미만(a)	73	3.93	.45		
	200-240만이상(b)	27	4.18	.44		
학력	고교졸	16	4.12	.44	1.872 (.156)	-
	전문대졸	173	4.04	.45		
	4년제대졸이상	50	3.92	.39		

3. 감정반응과 정서지능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영유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에 바람직한 감정반응과 정서지능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을 나타내는 VIF값은 1.0~2.2의 값을 보였고 Durbin-Watson 값도 2에 근접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학급연령, 교사경력, 교사학력, 교사연령, 월평균급여를 통제하고 감정반응과

정서지능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결과, 정서지능($\beta = .516, p = .000$)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감정반응($\beta = .148, p = .006$)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표 4). 즉 교사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감정반응이 바람직할수록 영유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활동 수준이 높았다. 독립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36.1%이었다.

이런 결과는 교사의 정서지능이 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보라(2014), 조혜진 외(2012), 이윤주(2016), 나수지(2015), 이민영(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공감능력이 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명신 2017; 최연정 2016)와도 유사한 결과였다.

〈표 4〉 보육교사의 상호작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VIF	F(p)
	B	표준오차	베타				
학급연령	.042	.027	.092	1.584	.115	1.224	16.207 (.000)
교사경력	-.031	.021	-.087	-1.459	.146	1.289	
교사학력	-.071	.044	-.087	-1.613	.108	1.057	
교사연령	.064	.049	.102	1.320	.188	2.163	
결혼여부	.074	.085	.065	.868	.386	2.005	
월평균급여	-.012	.038	-.018	-.308	.758	1.250	
감정반응	.140	.050	.148	2.782	.006	1.021	
정서지능	.491	.052	.516	9.443	.000	1.247	
R ²					0.361		
Durbin-Watson					1.810		

4.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이 높아질수록 감정반응이 바람직할수록 영유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활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지능이 높은 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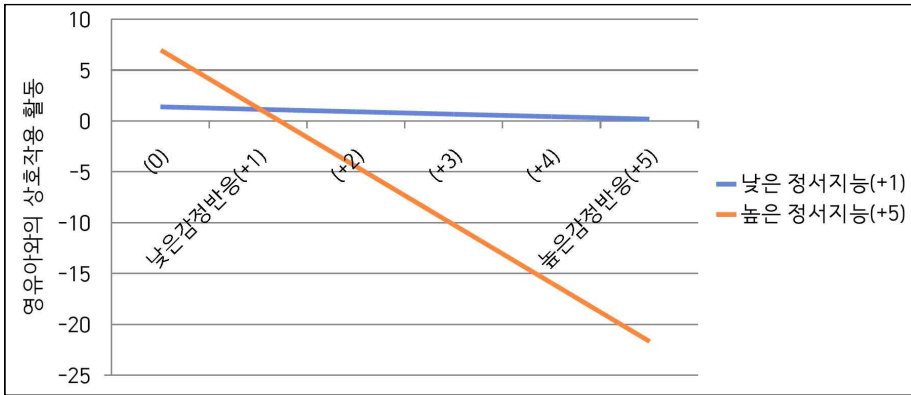
교사는 감정반응을 바람직하게 유지하려 노력할수록 정서노동이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소진감도 증가할 것이므로 자기조절을 통해 상호작용활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바람직한 감정반응이 긍정적인 상호작용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지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효과를 조절효과를 통해 조사해보면 <표 5>와 같다.

감정반응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모형 1단계에서는 설명력이 11.1%로 나타났다. 감정반응에 정서지능을 첨가한 모형 2단계에서는 설명력이 36.0%로 증가하였고,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형 3단계에서 설명력은 38.1%로 증가하였다. 감정반응과 정서지능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1.373$, $p=.009$).

[그림 1]에서 보듯이 정서지능이 높은 경우, 정서지능이 낮은 경우보다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이 많지만 감정반응이 증가할수록 영유아와의 상호작용활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서지능이 낮은 경우에는 바람직한 감정반응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서지능이 높은 보육교사는 바람직한 감정반응을 많이 하지만 이에 따라 정서노동과 소진감이 높아지므로 상호작용활동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표 5>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모형 단계	변수	β	t	p	VIF	R ²	R ² 변화량	F(p)
1	감정반응	.193	3.090	.002	1.013	0.113	-	4.187 (.000)
2	감정반응	.148	2.782	.006	1.021	0.361	0.285	16.207 (.000)
	정서지능	.516	9.443	.000	1.073			
3	감정반응(a)	1.133	2.992	.003	52.852	0.379	0.303	15.542 (.000)
	정서지능(b)	1.391	4.120	.000	42.029			
	a*b	-1.373	-2.626	.009	100.858			



$$Z = b_0 + b_1x + b_2y + b_3xy = 1.133x + 1.391y - 1.373xy$$

x: 독립변수(감정반응), y: 조절변수(정서지능)

[그림 1]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그래프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증가하는 한편 영유아의 정신건강 문제도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육교사의 감정반응 실태와 감정반응이 상호작용활동에 미치는 영향 및 이의 한계를 조사하여 영유아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보육교사의 자질과 보육정책에 개선 조건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보육교사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바람직한 감정반응 수준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축소전환형 감정반응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보육교사는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관형의 평균이 가장 낮아 감정보다 문제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감정코칭형 감정반응의 평균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면 관련된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위로하는 데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영유아 시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애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고 감정교류를 통해 정신건강에 기초가 되는 애착을 형성하므로 보육교사의 바람직한 감정반응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비덜프(Biddulph 2007)는 보육교사의 사랑은 한계가 있으므로 3살까지는 어머니가 사랑으로 키워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자기희생적 모성은 편견이며 신화라고 보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Hrdy, 2010), 전적으로 모성에 의한 양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육교사에게 모성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보육교사의 감정반응 자질을 높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영유아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감정에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보육교사의 외현적인 상호작용활동은 연령이 많은 집단, 기혼, 월평균 급여가 높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하용금(2018) 연구에서 연령이 40세 이상인 보육교사가 높은 상호작용을 보였던 것과 일치하나, 박경화(2018) 연구에서 미혼이 기혼보다 상호작용이 많았던 결과나 최연정(2016) 연구에서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정서표현이 많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자녀 양육의 경험이 없거나 적은 보육교사는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미묘한 아기의 눈짓이나 웅얼이와 같은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비덜프(Biddulph 2007)는 주장한다. 본 조사결과로 볼 때 애착형성이 중요한 3세 이전의 영유아는 기혼의 연령이 많은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불일치하고 자녀양육 여부가 아닌 결혼 여부를 조사한 것이므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보육교사의 감정반응은 상호작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감정반응을 할수록 긍정적인 상호작용활동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이 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명신 2017; 최연정 2016)와 유사한 결과였다. 보육의 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교사의 공감능력이 강조되어 왔으나 감정의 지각 여부를 나타내는 공감능력뿐 아니라 감정반응 방식도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감정반응이 상호작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정서지능은 조절효과

를 나타냈다. 정서지능이 높은 경우에는 낮은 경우보다 상호작용활동 수준은 높지만 바람직한 감정반응이 많아질수록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정서지능은 유아와의 상호작용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지만 정서노동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김주희 2018; 임영미 외 2016), 정서노동은 심리적 소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김혜리 2015; 송미선 외 (2009), 심리적 소진은 상호작용과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이나영 외 2014)로 볼 때, 바람직한 감정반응이 많아질수록 상호작용활동이 감소하는 것은 소진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보육교사의 바람직한 감정반응이 외현적 상호작용활동으로 표현되게 하려면 소진감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교사의 스트레스 관리, 교사 대비 아동수, 근무시간의 적절성, 업무의 과중성 등의 직업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영유아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애착이 필요하고 이의 형성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바람직한 감정반응과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결과 정서지능이 높은 보육교사는 바람직한 감정반응이 많아지면 긍정적 상호작용활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과 보육환경 개선이 필요할 뿐 아니라 부모양육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모성과 부모양육을 지원하는 보육정책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모성을 신화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애착은 모성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애착형성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인 3세 이전에 모성 또는 부모에 의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웨덴처럼 수입을 보전하며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전남 동부 지역의 소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교사를 임의표집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고 감정반응에 대한 측정도구는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수정하여 보육교사와 모성의 감정반응의 차이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미성·문혁준. 2013.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전문성 수준이 교사-유아 상호 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권 4호: 277-296.
- 권정숙·유재경·조혜영. 2016.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자아인식이 창의·인성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영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권 1호: 79-105.
- 권정윤·한유미·2005. “스웨덴 보육의 배경과 현황.” 『아동학회지』 26권 2호: 175-191.
- 권혜진. 2018. 『교사의 정서지능과 문제해결능력이 영유아 문제행동지도전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남희·김미진. 2016. “어린이집 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역할수행능력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간 관계.” 『생태유아교육연구』 15권 3호: 195-214.
- 김명신. 2017. 『어린이집 교사의 공감능력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병수. 2017. “양성 평등의 나라 스웨덴...아빠가 육아휴직의 27.6% 쓴다.” 『연합뉴스』(11월 14일), <https://www.yna.co.kr/view/AKR20171114183700098>.
- 김서영·김성희. 2016.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감정코칭 의사소통과 이에 대한 자녀의 지각차이 및 부적응문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권 2호: 1-17.
- 김수연. 2015. 『유아교사의 정서노동이 직무만족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 정서지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김영희. 2018. 『교사 정서지능과 공감능력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은옥. 2013. 『유아 교사의 행복감, 직무만족도와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주희. 2018. 『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정서노동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지현. 2019. “직장인부모 64% “육아휴직 경험없어” …30% “회사 눈치 때문.” 『연합뉴스』(7월 1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1039500004>.
- 김혜나. 2011.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혜리. 2015. 『보육교사의 표면적 정서노동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에 관한 연구: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광신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희정·안진경·안연경. 2018. “감정코칭을 활용한 교사교육이 교사의 회복탄력성과 교사-유아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8권 10호: 215-229.
- 나수지. 2015.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피로가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마성애. 2013. 『정서 및 문제행동 유아의 관계형성과 소통을 위한 감정코칭의 효과』. 송실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박경화. 2018.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자아탄력성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박성희. 2004. 『공감학』. 서울: 학지사.
- 박지은. 2012. 『감정코칭을 활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양육효능감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박진성. 2015.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행복감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권 1호: 97-118.
- 백승선·안영경·곽경화. 2017.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7권 2호: 1-24.
- 보건복지부. 2018.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6. 『어린이집 평가인증안내. 3차 지표 시범사업용』. 서울: 한국보육진흥원.

- 서유현. 2002. 『유치원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송미선·김소양. 2009.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권 4호: 99-119.
- 안상미. 2002. 『유아교사의 교사 효능감에 따른 교사-유아 상호작용』.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연보라. 2014.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영아발달지식이 교사-영아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유재령. 2014. 『유아교사의 정서노동과 교사효능감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간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이경미. 2012. 『어린이집 교사의 교수효능감, 대인관계능력 및 교수창의성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이경미. 2016. 『어린이집 저경력 교사가 경험하는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의 어려움』.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이나영·국지윤·김영옥. 2014.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정서노동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89권: 341-359.
- 이민영. 2015.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이 교사 민감성과 교사-영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이병선. 2015. 『교사의 회복탄력성이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이상은. 2009. 『도움받기와 도움주기 공감 및 정서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이선미. 2014. 『초등학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공감능력, 정서상태, 직무만족도 차이 분석』. 경희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이윤주. 2016. 『교사 정서지능과 의사소통능력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이정숙. 2003. 『교사경력과 유아연령에 따른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계명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임영미·정희정. 2016. “보육교사의 정서지능, 정서노동, 정서표현성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6권 4호: 77-105.
- 정다워. 2007. 『보육교사관련변인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정옥분·정순화·임정하. 2007. 『정서발달과 정서지능』. 서울: 학지사.
- 장현주. 2004. 『보육시설의 교수학습 환경이 유아의 정서지능발달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장희정·이선희. 2013. “영유아 5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빨간불.’” 『레이디경향』(5월), <https://lady.khan.co.kr/khlady.html?mode=view&code=14&artid=201305061841171>.
- 조영옥. 2015. 『유아교사의 의사결정 참여도와 정서지능이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관동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조하경. 2017.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 실태 및 중요성 인식』. 경성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조혜진·김수연. 2012. “영아 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7권 5호: 189-208.
- 조효진. 2006. 『공감능력과 이타성향간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지성애·정하나. 2015. “유아 공감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태.” 『유아교육연구』 35권 3호: 101-126.
- 차혜정·송승민. 2017. “교사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권 6호: 1-20.
- 최경화·홍상욱. 2016. “감정코칭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코칭연구』 9권 3호: 53-76.
- 최미애. 2000. 『유치원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최성애·조벽. 2012. 『청소년 감정코칭』. 서울: 해냄.

- 최연정. 2016. 『보육교사의 공감능력과 정서표현성이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최우미. 2015. 『Gottman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어머니의 자녀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최은아. 2016. “예비유아교사의 사회 인구학적 요인, 공감, 교직윤리의식이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학습지중심 교과교육연구』 16권 1호: 821-846.
- 최지민. 2015. 『초등교사의 공감능력과 정서표현성이 교사 부모 간 의사소통 수준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유동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최현미·김성민·권정심·이경옥. 2009. “유아교사의 역할수행과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모형 분석: 교사의 정서지능, 조직풍토, 직무만족도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3권 6호: 323-343.
- 통계청. 2017.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보도자료』(11월 20일).
- 하영례·김은영. 2013. “공감적 교사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보육교사의 이해와 행동의 변화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7권 5호: 267-289.
- 하용금. 2018. 『영아보육교사의 직무성과와 교사-영아 상호작용이 교사-영아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한국건강증진재단. 2012. 『한국영유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서비스 요구도 연구』. 서울: 한국건강증진재단.
- 한지현·유태용. 2005. “상사의 정서지능이 부하의 태도와 상사 과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8권 1호: 177-199.
- 황분희. 2013. 『어린이집 교사의 적성 및 정서노동과 교사-유아 상호작용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Ainsworth, Mary D. Salter, Mary C. Blehar, Everett Waters and Sally N. Wall.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Lawrence Erlbaum.

- Barnes, H. L. and D. L. Olson.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in D. H. Olson, H. I.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and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Inventories Used in a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33-48.
- Bell, Daniel 저. 홍길동 역. 2013. 『후기산업사회의 도래』. 서울: 개벽사
- Biddulph, Steve 저. 이승희 역. 2007. 『3살까지는 엄마가 키워라』. 서울: 북섬.
- Coan, J. A. and J. M. Gottman. 2007. "The specific affect coding system (SPAFF)." in J. A. Coan and J. J. B. Allen. eds. *Series in Affective Science. Handbook of Emotion Elicitation and Assessment*. New York, NY, US: Oxford University Press, 267-285.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1-19.
- Davis, M. H. 1994.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Madison, WI: Westview Press.
- Ginott, Haim. 1969. *Between Parent and Teenager*. New York, NY: Scribner.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New York :Bantam Books.
- Gottamn, J. M. and J. DeClaire 저. 남은영 역. 2007. 『내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감정코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Gottman, J. M. and L. F. Katz and C. Hooven.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3): 243-268.

- Hochschild, A. R. 1983. "Untang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splayed Emotions and Organizational Sales: The Case of Convenience Stor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1: 461-487.
- Howes, C. and E. W. Smith. 1995. "Relations among child care quality, teacher behavior, children's play activities, emotional security, and cognitive activity in child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 (4): 381-404.
- Hrdy, Sarah Blaffer 저. 황희선 역. 2010. 『어머니의 탄생』. 서울: 사이언스북스.
- Jilberto, Alex E. Fernandez. 1991. "Military bureaucracy, political opposition, and democratic transi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18 (1): 32-65.
- Rogers, C. R.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2): 95-103.
- Salovey, P. & J. D. Mayer.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Wong, C. S., and K. S. Law. 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 243-274.

The Emotional Response of Nursery Teacher and the Effect of it on Interaction Activity Limited by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Young Hee Kim**·Sunghee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motional response of nursery teacher affecting on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the effect of it on interaction activity limited by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m. The data selected from 239 nursery teachers were analyzed by SPSS 23.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emotional response was not high in desirable degree. In the subcategories, the response type that did not ignore emotion was high, but the tendency to be more concerned with the emotion than problem and the level of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emotion was not high. Second, the level of interaction activities with children was different depending on age, marital status and level of income. Third, the emotional intelligence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the positive interaction activities and the next was the emotional response. Forth,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was significant, which showed the interactions decreased as the desirable emotional response increased. From thes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nursery teachers should be educated to improve the desirable emotional response, that the job conditions should be improved to reduce burnout, and that the policy to protect motherhood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protect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Keywords : Nursery Teacher, Emotional Response, Emotional Intelligence, Interaction

투고일: 2020.01.23. 심사일: 2020.02.13. 게재확정일: 2020.03.03.

* This work used the part of master's thesis.

** Master of Consumer & Family-child Studies Graduate school, Suncheon National Univ.

***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uncheon National Univ, Corresponding author.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0.3.5.1.33>

【연구논문】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전략에 관한 연구

김재호*·민정훈**

논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군사개입 전략을 논의한다. 본 연구의 질문은 북한 내전 발생 시 중국의 군사개입 조건들은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개입 수준이 결정되는가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그러한 요인들이 해당 시기 가상의 국내-국제적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하여 군사개입 결정으로 이어지는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치학에서 논의되는 가상사실 분석과 더불어 미래연구 방법론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분석의 적실성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가상사실-시나리오’ 분석은 군사안보 분야 연구에 있어 유용한 방법론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군사개입 전략, 북한 급변사태, 가상사실 분석, 시나리오 분석, 미래 연구

I. 서론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군이 북한을 점령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다”는 언급(Weitz 2010, 13)과 같이 북한 위기에 대한 중국의 인도적 역할, 질서유지 역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역할 등 개입의 필요성 또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왔다(Bennett and Lind 2011; Glaser and

* 해군사관학교, 제1저자

** 국립외교원, 교신저자

Snyder 2010; Mastro 2018; Wortzel 2009). 이들은 북한 붕괴 시 또는 통일과도기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검토하지만, 그러한 개입이 결정되는 역학을 설명하는 데는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경험적 사실에 기초한 상관관계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사회과학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피어론(James D. Fearon)은 다수의 정치학자가 역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에 대한 분석을 강조하는데 함몰되어 있으며, 경험적 정치학은 반드시 실제 사건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인식함으로써 가상사실을 회피하려 해왔다고 지적한다(Fearon 1991).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 과도기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가능성을 다루고자 한다. 만약 북한에서 내전이 발생한다면 중국의 군사개입 조건들은 무엇이며, 중국의 군사개입은 어떠한 형태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그러한 요인들이 가상의 국내-국제적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하여 군사개입 결정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사건 또는 결정 등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치학에서 ‘가상사실(Counterfactuals)’ 연구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연구하는 것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경험적 연구보다 적실성이 약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과학은 과거 사례와 현상을 설명할 뿐 아니라 이론에 근거하여 일반화를 추구하고 미래를 예측하려 시도한다. 따라서 가상사실 분석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변수들의 적용성을 가상의 실험실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실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Nye and Welch 2011).

또한, 본 연구는 가상사실 분석에 더해 미래연구 방법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의 적실성을 높이고자 한다. 증가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미래연구 방법론에 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또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학에서, 특히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가상사실-시나리오 분석’은 군사학 및 정치학 연구에 있어 유의미한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가상사실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

1.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과학적 접근

21세기에 들어 기존의 단극체제를 넘어 새롭게 도래할 ‘다극화 세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정보통신기술(ICT) 혁명으로 기술의 힘은 외교, 안보, 군사 분야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더욱이 초국가적 위협인 대규모 자연재해, WMD 확산, 테러리즘, 전염병 등은 국제사회 변동을 예측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1960년대 ‘미래학’으로 불리는 분야가 등장했으며, 세계 각지에서 미래 연구를 전담하는 학술단체, 기업, 연구소들이 증가해왔다. 한국에서도 1968년 다양한 분야 석학들이 모인 미래학회가 창립되었던 역사가 있으며, 2000년대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에서 미래예측 방법론이 소개된 바 있다(최향섭·강홍렬·장종인·음수연 2005).

정치학에서도 가상사실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을 통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다. 우선 정치학자들에게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분석 자체가 낯선 것이며, 또한 그동안 정치학 분야의 예측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미래의 사건에 대한 체계적 분석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국내의 경우 정치학 분야의 몇몇 논문에서 미래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존재하였는데, 주로 이러한 시도는 북한관련 연구, 즉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유형, 북한 체제변동 시나리오, 북핵문제의 전개 시나리오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김관호 2016; 정지웅 2002; 조경근 2010). 하지만 이들 연구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연구방법을 모델링하거나 체계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기 보다는 전망적 관점 혹은 연역적 추론에 의한 다양한 사건 발생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에서의 미래연구와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과 과학적 접근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가상사실-시나리오 분석’이라는 새로운 분석틀의 가능성을 검토한다.¹⁾ 북한은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

적 고립상황에 처했으며 이러한 정치적 문제는 국내의 경제난으로 전이되고 있다. 향후 북한의 정치, 경제적 불안정이 임계점을 넘게 된다면 급변사태는 가상사실이 아닌 사실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한반도가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군사안보 사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방법론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 가상사실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가상사실(Counterfactuals)은 ‘만약에(What if)’라는 질문을 통해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다.²⁾ 이러한 질문은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보다 적실성 있게 규명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에크스트룀(Mats Ekström)에 따르면, 인과적 설명은 단순히 변수들의 경험적 상관관계 또는 경험적 법칙에 의한 예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행동’들의 인과적 속성과 과정을 밝혀내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행동’은 내적으로 연관된 정신적 기질, 의미, 의도, 사회적 맥락과 구조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Ekström 1992). 가령 복잡한 대내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역사적 인물들은 실제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다. 인간의 선택은 구조적 맥락뿐만 아니라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스마르크, 히틀러, 체임벌린과 같은 역사적 사건의 행위자가 당시에 다른 선택을 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역사도 달라질 수 있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가상사실은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법의 조건명제이다.³⁾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

-
- 1)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것. 박형중. 2009. “통일학과 시나리오 방법론.”『통일과 평화』, 제1집: 110-140; 황지욱. 2000. “시나리오 기법에 기초한 한반도 통일의 예측과 남북한 접경지대의 균형적 및 환경친화적 개발구상.”『국토계획』제35권 6호: 35-47; 김갑식. 2012. “시나리오 기법에 기초한 북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현대북한연구』제15권 1호: 124-156; 이무철. 2012. “향후 10년 북한 인권문제의 전개: 시나리오 기법을 중심으로.”『현대북한연구』제15권 1호: 157-193.
 - 2) 대표적 저서로 다음을 참조. Richard Ned Lebow. 2010. *Forbidden Fruit: Counterfactual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3) 가상사실의 철학적 중요성은 여러 개념 중에서도 인과(Cause)의 개념에 의해 잘 전달된다. 따라서 가장 유망한 인식의 이론은 인과이론이기 때문에 가상사실은 인식의 논의에 적절하다. John Collins, Ned Hall, and L. A. Paul. 2004.

서는 자연과학과 달리 물리적 실험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상사실 분석은 정신적인 실험을 통해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통제하면서 하나의 조건이나 변수를 반대의 사실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가상의 결과를 설명함으로써 세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다.⁴⁾ 예컨대 “만약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이 아닌 좌회전을 하여 황태자가 암살되지 않았더라면 전쟁을 막을 수 있었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과연 어떠한 요인이 진정으로 전쟁의 불씨가 되었는지를 고찰할 수 있다(Nye and Welch 2011, 65). 이처럼 우리는 사실과 반대되는 조건을 구성해 봄으로써 특정한 요인이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조사해 볼 수 있다.⁵⁾

가상사실 분석은 가상의 데이터를 구성하여 이론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실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론적 주장을 도출하는 사실적 분석과 구분된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의 구조적 설명방식이 갖는 결정론적 단점을 극복하는 데 유용하다. 예컨대 “냉전이 끝나면 세력균형이라는 존재의 목적이 없어지는 NATO는 역할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이다” 또는 “소련의 상대적인 경제적 취약성이 냉전의 종식을 가져왔다”라는 명제는 거시적 변수만을 고려하여 성급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상사실 분석은 이러한 구조적 설명방식의 단점인 결정주의, 사후확실의 편향성(Certainty of hindsight bias) 등을 극복하고, 역사적 사건들의 불확실성과 상황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더 중점을 두게 하며, 상황적 요인들을 가상의 실험 속에서 재검토하게 해주는 도구이다.⁶⁾

나이는 연구자들이 가상사실 분석을 시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네 가지로

Causation and Counterfactuals. Massachusetts: MIT Press.

4) 가상사실 논의의 기원과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Philip E. Tetlock and Aaron Belkin. 1996. *Counterfactual Thought Experiments In World Politic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5) 라किन은 차이법이 하나의 이론적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하나의 경험적 사례와 관심 대상 현상의 이론적으로 순수한 상상의 상태를 대비하는 사고 실험이다. 이러한 실험은 경험적 사례의 고유한 특징을 설명하고 해석 할 수 있게 돕는다. Charles Ragin. 1987. *The Comparative Method*.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6) 가상사실 분석 방법론에 관한 주목할 만한 선행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민병원. 2006. “국제관계의 과학적 역사: 시뮬레이션과 반사실적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2호: 157-194.

압축하여 소개한다(Nye and Welch 2011, 66-69). 첫째, 가상사실 구성의 ‘그럴 듯함(Plausibility)’이다. 19세기의 환경에서 20세기의 기술을 상상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고, 현실에서 그러한 조건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시간상의 근접성(Proximity in Time)’이다. 사건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가상의 시점이 사실과 더 멀어질수록 보다 많은 요인을 통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상의 시점은 현재와 가까울수록 좋다는 것이다. 셋째, ‘이론과의 관계(Relation to theory)’이다. 가상사실적 논리는 기존의 이론에 기초하여 논증해 나갈 때 보다 유용하다는 것이다. 넷째, 사실(Fact)과 연관지어 신중하게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가상사실을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고 역사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두에 언급한 피어론(Fearon 1991)도 가상사실 분석의 유용한 점과 사용가능한 경우, 실제적용의 예, 연구시의 주의점 등에 대해 잘 정리하고 있다. 르보우(Lebow 2000)는 기존의 가상사실 연구들이 보여준 혼란을 정리하는 한편 가상사실 분석의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가상사실 분석이 유용한 조건으로 첫째, 분석 단위가 거시적인 경우, 둘째, 설명하기에 너무 많은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를 제시하면서 사고 실험을 통해 다른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관심 변수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외에서 가상사실을 이용한 연구들이 활성화되는 데 비해, 한국에서 가상사실 분석을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다. 대표적 연구로 민병원(2006)은 실제 역사를 반복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실험을 통해 역사를 가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일정한 ‘규칙성’ 등을 과학적 방법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정신적 실험으로 시뮬레이션과 가상사실 분석을 제시한다. 그는 가상사실 분석을 활용한 사례 연구에서 박정희 정부의 핵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의 상반된 가상사실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박정희가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했을 경우이고 두 번째는 핵무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재개했을 경우이다. 그는 이러한 상반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박정희 정부가 선택한 ‘이중적 핵정책’은 당시의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선택이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윤태룡(2009)의 사례연구는 한일관계정상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박정희의 리더십과 미국의 압력을 관계정상화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비해, ‘만약 장면내각이 유지되었다면’이라는 가상사실 구성을 통한 분석을 통해 박정희 정권보다 빠르게 관계 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당시 일본의 반군사주의 정서를 변수로 제시하여 간과되고 있었던 요인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든다.

이상에서 살펴본 가상사실 분석의 특징 및 유의점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통일 과도기 북한 내전 발생과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전략’ 분석을 위한 적실성 있는 가상의 실험실 구성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내전 발생’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급적 현재와 가까운 시점을 설정하되, 그 상황 자체가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나머지 환경 조건은 기존의 사실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시도할 것이다. 한편 가상의 실험실에서 주요 변수의 발굴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3. 시나리오 분석(Scenario Analysis)

과학과 학문의 내면에는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을 중심축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나 불확정성은 관측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확대되고 증폭되는 속성을 가진다.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앞날의 현상이 먼 미래가 되면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이해하는 구조나 체계를 통해 설명할 가능성이 감소하게 된다(최항섭·음수연·전미경 2006, 32-33). 하지만 인간은 포기하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물론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으로 인해 미래를 명확히 단정 지을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 대안으로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럴듯함(Plausibility)’을 추구한 것이다. 시나리오 분석은 그 대표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미래를 설명하는 내용이 단정적이기보다는 가능한 미래에 대해 다양한 결과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히고 그러한 결과들이 발생하는 과정과 그 역학을 설명한다.

시나리오 분석은 인간이 미래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일찍이 만들어진 연구 방법이다. 개념적 측면에서는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Plato)에서 출발하여 무어(Thomas More), 오웰(George Orwell)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의 현실에서 시나리오 방법은 군대의 전략가들에 의해서 전쟁연습(war game

simulation)의 일환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군사 부문의 시나리오 기법은 19세기 들어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와 몰케(Helmuth von Moltke)에 의해 문서로 정리된다. 이후 1960년대에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근대적인 시나리오 기법들이 등장하였으며,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가와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미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나리오 방법은 점점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Bradfield 2005).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셀리나(Selina 2006)는 사회과학 연구의 측면에서 시나리오 기법의 효용성을 검토했고, 포스트마와 리블(Postma and Liebl 2005)은 전략적 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시나리오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접근과 함께 실제 각 부문의 이슈에 적용한 연구로 페티그루, 우드만, 카메론(Pettigrew, Woodman, and Cameron 2001)은 '지속가능학(Sustainability Science)'의 체계적이고 잘 조직된 방법론으로서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그 유용성을 입증했으며, 스와트, 라스킨, 로빈슨(Swart, Raskin, and Robinson 2004)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환경학과 지구환경 변화가 가진 미래의 불확실성, 인간의 선택과 복잡성이라는 요소를 극복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스노옥(Snoek 2003)의 연구는 교육학에서의 시나리오 방법을 적용한 사례이다.

이처럼 미래학, 관리학, 경제학, 환경학, 교육학 등에서 시나리오 방법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한 연구들이 발견되지만, 방법론 측면에서 접근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일찍이 미래연구 방법론에 관심을 가진 집단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었다. 이들은 미래연구 방법론 중 가장 널리 활용되고 그 체계를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 시나리오 기법임을 설명하면서, 세계의 미래학 연구소에서 사용되는 시나리오 기법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최항섭·음수연·전미경 2006).

〈T.A.I.D.A〉

T.A.I.D.A.는 스웨덴의 미래연구소인 Kairos Future에서 사용하는 시나리오 기법으로 5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미래에 영향을 줄 '현재의 변화'를

추적하는 Tracking이 이루어진다. Tracking에서 찾아낸 변화들을 분석한 후 시나리오를 만드는 작업인 Analysing이 이어지며, 시나리오 기법은 대부분 Analysing 작업에서 활용된다. 그러나 T.A.I.D.A 방법론은 기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제시 이상의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이 Imaging 작업인데, 도출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 낸다. 이를 통해 비전이 정해지면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들을 내놓는 Deciding 작업이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문서화된 전략들을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Acting작업이 뒤따른다.

〈BASIC〉

Betelle사의 BASIC 방법도 시나리오 기법을 핵심으로 하며, 미국 RAND의 교차영향분석 (Cross-impact analysis)을 활용하고 있다. BASIC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핵심이슈를 명확히 하는 것: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체계적으로 요인(Factor)들을 뽑아낸다, ②트렌드분석: 요인들의 변화추세를 연구한다, ③교차분석: 트렌드 분석의 결과를 자료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가장 확률이 높은 트렌드와 미래상을 추출한다, ④시나리오 도출과 상세묘사: T.A.I.D.A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트렌드를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 방식은 라운드 로빙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트렌드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MICMAC〉

미국과 함께 시나리오 분석 발전의 다른 한 축인 프랑스의 시나리오 방법이다. BASIC과 같은 교차분석에 의한 확률적 기법을 사용했으며, 그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미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아낸다. 이를 위해 최대한 많은 양적 자료들을 입수하고 교차분석의 매트릭스를 만든다. 이때 각 변수가 다른 변수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0-4점으로 매긴다, ②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찾고 불확실한 것들을 버리는 작업을 수행한다, ③도출된 시나리오에 대한 발생확률을 전문가에게 조사토록 하여 통계적으로 처리한다.

〈The Futures Group〉

The Futures Group은 주로 국제정치, 글로벌 방위산업 분야의 미래 시나리오 연구를 하는 곳으로, 그들의 시나리오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연구초점을 명확히 하는 단계로 T.A.I.D.A와 유사하다, ②거시적 동인들을 도출하는 단계로 T.A.I.D.A의 Tracking과 유사하다, ③시나리오 작업으로 T.A.I.D.A가 2가지 불확실성을 가지고 2x2 테이블을 이용한 것과는 달리 네 가지 거시적 동인(Driving force)의 조합으로 다수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가능성이 낮은 것과 비논리적인 것을 삭제하여 소수의 시나리오를 추출한다.

〈The Art of the Long view〉

미국 GBN(Global Business Network)의 시나리오 방법론으로 가능한 미래들을 시나리오의 방식으로 전망하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초점 이슈와 결정될 사안을 명확히 한다, ②미시적 시각에서 주요한 동인들을 도출한다, ③미시적 동인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적 동인을 도출한다, ④ 중요성과 불확실성에 따라 서열화함으로써 2-3개의 핵심요인을 찾아낸다, ⑤시나리오 작업을 수행하는데 T.A.I.D.A와 매우 유사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나리오 방법들의 공통점은 우선 사전 준비 작업에서는 ‘질문을 명확히 하는 것’, ‘알고자 하는 미래의 시간적 지평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다음으로는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미시적 동인을 찾아내고 추세를 예측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후에는 찾아낸 동인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뒤따른다. 대표적으로 사용된 기준은 ‘영향력’과 ‘가능성’이었다. 영향 정도와 불확실성에 의해 분류되어 최종적으로 남은 동인들은 교차좌표 또는 테이블로 옮겨지고 이에 기초하여 연구진이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 T.A.I.D.A와 Batelle사의 BASIC은 2x2 매트릭스 분석을 주로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BASIC과 MICMAC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통계방법을 적용하고, 다른 방법들은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이를 재정리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렇듯 각각의 방법들이 형태는 조금씩 달라도 전반적인 구성에서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들을 수용하여 사회과학연구에 적합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면, 시나리오 분석은 정치학의 미래연구 방법론 진전에 기여하리라 판단된다.

Ⅲ.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에 대한 가상사실-시나리오 분석

여기서는 통일 과도기 북한의 내전 발생이라는 가상사실을 상정하고,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에 대한 ‘가상사실-시나리오 분석’을 시도한다. 먼저 제1단계에서는 ‘북한의 내전발생’이라는 가상사실을 구성하고, 이어서 2단계에서는 ‘중국의 군사개입’이라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T.A.I.D.A 시나리오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예상되는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시나리오들을 도출하였다.

1. 1단계: 미래 가상사실의 구성

미래의 가상사실을 구성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쉬운 작업이 아니다. 가능한 ‘그렇듯한’ 가상사실을 구성하기 위해서 가까운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가상사실의 시점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미래 가상사실은 한반도 통일 과도기에 발생 할 수 있는 북한의 급변사태, 구체적으로 북한 내의 분열로 인한 내전의 발발이다. 내전 발생은 연구자들의 다양한 급변사태 시나리오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북한의 급변사태를 고려하여 한·미간에 논의되었던 군사대비계획에서도 북한 급변사태 중 하나로 ‘쿠데타, 주민폭동으로 인한 내전상태’를 들고 있다.⁷⁾ 이러한 심각한 불안정은 중국 군사개입의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다.

먼저 가상사실의 발생 가능성과 관련하여, 북한은 반복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경제제제가 강화될수록 대내의 경제적 어려

7) “남북정상회담 거론 '작계 5029'란.” 『연합뉴스』 2013년 6월 24일.

움도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극대화되는 경우 북한에서 내전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다음으로 가상사실의 시점은 콜린스의 북한 붕괴 7단계 시나리오에 따라 2022년 북한이 4단계 정권에서 소외된 세력들의 활동에 대한 ‘탄압’과 5단계 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을 거쳐 6단계 ‘체제 분열’ 단계에 도달한 시점을 상정한다.⁸⁾ 콜린스가 제시한 5, 6단계의 징후로는 군 지휘관들이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지배층의 암투로 핵심인물들에 대한 공개처형이 시작된다. 본 연구는 이 6단계 ‘체제 분열’의 시점, 구체적으로 북한에 내전이 발생한 시점을 정신적 사고 실험의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 즈음하여 북한에서 군 지휘관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함께 지배세력과 저항세력간의 교전이 발생하여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설정하였다.

2. 2단계: 미래 가상사실 분석의 주요 변수 선정

2단계에서는 통일 과도기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선정한다. 변수 도출과 관련하여 강장석(2006)은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을 촉진하는 변수로 사회주의 체제유지, 영토문제, 미국 영향력의 차단 등 중국의 대한반도 이해관계를 제시하고, 개입을 억제하는 변수로는 미국의 억지력, 일본의 견제, 한중관계 등을 제시한다. 그는 중국에게 각기 다른 방향의 변수들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군사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한다. 다만, 북한의 체제 분열로 이어질만한 돌발사태 또는 대혼란이 발생하여 중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때 군사개입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라미경과 김학린(2006)은 국제법과 규범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가적 수준의 개입으로 자위권에 의한 개입을 들고 있다.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따라 북한이 요청할 경우, 북한 내 군사적 돌출행동이 발생할 경우,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 통제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중국이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8) 1996년 작성된 콜린스의 시나리오는 다소 오래되었지만,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쉬운 유용성을 가진다.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경근의 연구를 참조할 것. Robert Collins. 1996. "Patterns of Collapse in North Korea." *The Combined Forces Command C5 Civil Affairs Newsletter*; 조경근. 2010. “북한 급변 시나리오의 비판적 고찰.” 『통일전략』 제10권 2호: 241-243.

김연수(2006)의 경우 북한의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동북지방의 안정, 미국주도의 자유 확산방지 차원에서 평가한다. 그는 중국이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의거하여 북한에서 내전이 발생하는 경우 중국은 이를 전쟁상태로 간주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되고, 국경지역 안전에 대한 위협을 개입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내전확산이나 원조지원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직접개입보다는 간접개입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정천구(2009)는 중국의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개인적 이해관계, 체제적 이해관계, 역사적 경험, 그리고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제시한다. 그는 북한 급변사태 자체가 동아시아 세력변화에 영향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중국의 개입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대북 군사개입의 결정 요인으로 조중동맹의 발동, 북한의 사태가 중국의 국경지대로 확산되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할 때 자위권의 발동, 외국의 일방적인 군사개입, 대량살상무기의 통제권 상실, 국제사회의 공동 군사개입에의 참여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는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을 설명하는 변수로 중국의 핵심이익 침해와 북한내전의 대결 구도를 선정하였다. 먼저 중국이 우려하는 상황은 국경으로의 난민 대량유입과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의 불안정이다. 그런데 북한의 내전으로 국경이 불안해지고, 한국 또는 미국이 북한의 핵을 확보하거나, 나아가 한미동맹 중심의 무력에 의한 통일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은 북한 내전의 결과로 반중세력이 새롭게 집권하는 경우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 경우 남북한과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 3단계: T.A.I.D.A 시나리오 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가능성 검토에 있어 대표적인 시나리오 분석방법인 T.A.I.D.A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Tracking 단계에서부터 시나리오를 만드는 Analysing 단계까지에 집중하여 통일 과도기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 내전이 발생한 시점을 정신적 실험의

가상시점으로 설정하였다. 2020년 즈음하여 북한에서 군 지휘관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함께 지배세력과 저항세력간의 교전이 발생하여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주 행위자는 북한, 중국으로 설정했으며, 국제법과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 선택되었다.

먼저 Tracking 단계는 이슈와 관련된 ‘흐름’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는 현재를 기점으로 가까운 과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추세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슈에 관련된 여러 ‘흐름’을 도출하며, 이를 ‘가능성’과 ‘영향력’에 따라 유형화시키는 작업이 진행된다. 다음으로, Tracking 단계를 거쳐 ‘흐름’에 기초하여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Analysing 단계가 진행된다. 선별된 ‘흐름’들을 미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과 거시적으로 영향을 주는 ‘흐름’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흐름’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한다. 이때 다른 흐름에 영향력이 큰 지배적인 흐름을 찾아내어 ‘확실한 흐름’으로 명명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면, ‘중국의 핵심이익 보호’가 확실한 흐름이 된다. 다음으로 ‘확실한 흐름’을 바탕으로 불확실하지만 영향력이 큰 요인들을 설정한다. 이 작업이 바로 시나리오 분석의 핵심이다. 즉, 미래의 이슈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만 그 변화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힘든 흐름의 ‘불확실성’을 찾아내고 이들을 활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이때 ‘불확실성’은 2개 이상이 될 수 있지만, T.A.I.D.A에서는 통상 2개를 선택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중국의 핵심이익의 침해 여부와 북한 내전의 정치적 구도로 설정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침해 유무는 중국의 자위권 행사와 결부되어 있는 반면 북한 내전의 정치적 구도는 개입의 적극성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자위권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급박한 위협을 배제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그 근거로 유엔헌장 51조를 들고 있다. 자위권 행사의 요건은 ‘침해의 급박성’이 문제가 되며, 이를 해석함에 있어 전통적 자위권은 물론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 외에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개입으로 첫째, 조약의 규정에 따른 개입, 둘째, 정통정부의 요청에 의한 개입, 셋째, 반대 개입 등이 국제법상 정당한 개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먼저, 핵심이익의 침해 여부는 중국 국경 부근까지 교전 확산, 대량 난민의 국경 유입, 대량살상무기 사용위협 등 중국 내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 위협 상황이다. 만약 이러한 핵심이익이 침해될 경우 중국은 자위권을 발동 할 수 있으며 군사적 수단을 통한 개입도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핵심적 이익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국력의 상승과 함께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할 수 없게 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잠정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개입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군사적 수단은 국제법적 정당성을 고려하여 차선의 수단으로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북한 내전의 정치적 구도도 중국의 개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친중세력 간의 내전일 경우는 내전 결과가 북중 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망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 내전의 정치적 구도가 친중정권 대 반중세력의 대결로 진행된다면 내전 결과 중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북중 관계가 전개될 가능성과 더불어 미국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적극적 개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표-1〉 북한 내전발생시 중국의 군사개입 결정 시나리오

구 분		중국의 핵심이익 침해 여부	
		유	무
내전 구도	친중세력 vs 친중세력	시나리오 1 (방어적-소극적 개입)	시나리오 3 (예방적-소극적 개입)
	친중세력 vs 반중세력	시나리오 2 (방어적-적극적 개입)	시나리오 4 (예방적-적극적 개입)

〈표-1〉은 중국 관련 북한 내전의 정치적 구도와 중국의 핵심이익의 침해여부라는 두 핵심 변수들을 조합하여 구성할 수 있는 4가지의 시나리오의 예시이다. [시나리오 1]은 ‘방어적-소극적 개입’으로 중국은 ‘자위적’ 군사적 개입에 대한 국제법적

인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북한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이다. 개입의 수준이 가장 온건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시나리오 2]는 '방어적-적극적 개입' 상황으로 친중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중국의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시나리오 1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중국은 북한 정부에게 개입요청을 하도록 강요하면서까지 군사적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을 선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시나리오 3]의 경우 북중 국경에의 대량 난민 유입이나, WMD의 위협 등이 존재하지 않는 '예방적-소극적 개입' 상황으로 일방적인 선제적 군사개입은 국제법적인 정당성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군사적 수단의 사용은 국제사회와 미국과 한국의 반발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양될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 4]의 경우 '예방적-적극적 개입' 상황으로 정치적 지원을 통해 북한에서 친중적인 정권이 승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하지만 군사적 개입은 지배세력의 요청이 있더라도 국제적 규범과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최대한 지양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3단계의 '가상사실-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중국의 북한 내전 개입 시나리오를 도출해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연구자들이 가상사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과 미래 상황을 결정하는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나아가 변수의 종류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정치학계에서도 이러한 시도들이 축적된다면 군사안보 분야 연구 및 정치학 연구의 범주가 미래의 시점으로 확장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IV.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의 내전 발생이라는 가상사실에 대한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연구하는 방법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정치학의 가상사실 분석과 미래연구의 시나리오 기법을 절충한 '가상사실-시나리오 분석'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제1단계에

서는 ‘북한의 내전발생’이라는 가상사실을 구성하였고, 2단계에서는 ‘중국의 군사개입’이라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T.A.I.D.A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통일 과도기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결정의 4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 시도는 미래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동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확실한 흐름’들이 어떠한 ‘불확실성’에 의해 다양한 상황으로 전개되는지를 상상하게 만듦으로써,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미래 상황들을 구성해 볼 뿐 아니라 이러한 미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유용성 및 상호작용을 관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미래 가상사실 시나리오 분석은 미래의 사건 또는 결정 등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경험적 연구보다 적실성이 약하다는 주장에 기초하여 정치학에서는 가상사실에 대한 연구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계속 증가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미래연구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또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가상사실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은 군사학 및 정치학 연구에 있어 의미 있는 방법론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론에 근거하여 일반화를 추구하고 미래를 예측하려 시도하는 사회과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상사실 분석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변수들의 적용성을 ‘가상의 실험실’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실험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장석. 2006. “북한의 체제붕괴 위기 시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 『신아세아』 제13집 3호: 23-49.
- 김관호. 2016.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안,” 『북한학보』 제41집 2호: 5-38.
- 길준석. 2007. 『북한투자환경의 게임 이론적 분석: 주요 정치적 협상변수들을 통한 게임 이론의 시나리오 구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갑식. 2012. “시나리오 기법에 기초한 북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 『현대북한연구』 제15권 1호: 124-156.
- 김연수. 2006. “북한의 급변사태와 남한의 관할권 확보방안.” 『신아세아』 제13집 4호: 66-96.
- 라미경·김학린. 2006. “북한 급변사태와 국제사회의 개입.” 『분쟁해결연구』 제4집 2호: 33-58.
- 민병원. 2005. “1970년대 후반 한국의 안보위기와 핵개발: 이중적 핵정책에 관한 반(反) 사실적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6집 1호: 127-165,
- _____. 2006. “국제관계의 과학적 역사: 시뮬레이션과 반사실적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2호: 157-194.
- 박형중. 2009. “통일학과 시나리오 방법론.” 『통일과 평화』 제1집(창간호): 110-140.
- 변창구. 2009.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외교안보전략.” 『통일전략』 제9집 1호: 9-40.
- 이무철. 2012. “향후 10년 북한 인권문제의 전개: 시나리오 기법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5권 1호: 157-193.
- 정지웅. 2002. “한반도의 통일과정과 시나리오: 융합통일의 제기.” 『북한연구학회보』 제6집 2호: 87-113.
- 정천구. 2009. “북한의 급변사태와 대중외교전략.” 『통일전략』 제9집 1호: 125-164.

- 정희섭. 2008. 『북한 급변사태의 시뮬레이션과 대응방안 제시: 법적, 정치, 외교적, 군사적 분야 중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경근. 2010. “북한 급변시나리오의 비판적 고찰.” 『통일전략』 제10집 2호: 237-272.
- 최종건. 2000.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붕괴와 북한 체제의 변동 가능성: 사회주의 체제 붕괴 유형의 북한 적용과 체제 변동 시나리오』.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항섭·음수연·전미경. 2006. 『디지털사회의 미래예측 방법론 연구』.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최항섭·강홍렬·장종인·음수연. 2005. 『미래 시나리오방법론 연구』.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황지욱. 2000. “시나리오 기법에 기초한 한반도 통일의 예측과 남북한 접경지대의 균형적 및 환경친화적 개발구상.” 『국토계획』 제35권 6호: 35-47.
- Bennett, W. Bruce and Jennifer Lind. 2011. "The Collapse of North Korea: Military Missions and Requirements." *International Security* 36(2): 84-119.
- Bimber, A. Bruce. 2003. *Information and American democracy: technology in the evolution of political powe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adfield, Ron. 2005. "The origin and evolution of scenario techniques in long range business planning." *Futures* 37(8): 795-812.
- Burta, George. 2007. "Why are we surprised at surprises? Integrating disruption theory and system analysis with the scenario methodology to help identify disruptions and discontinuitie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72(2): 731-749.
- Collins, Robert. 1996. "Patterns of Collapse in North Korea." *The Combined Forces Command C5 Civil Affairs Newsletter* (Seoul: Korea).

- Collins, John, Ned Hall, and L.A. Paul eds. 2004. *Causation and Counterfactuals*. Massachusetts: MIT press.
- Ekström, Mats. 1992. "Causal Explanation of Social Action: The Contribution of Max Weber and of Critical Realism to a Generative View of Causal Explanation in Social Science." *Acta Sociologica* 35(2): 107-122.
- Elster Jon. 1978. *Logic and Society*. New York: Wiley.
- Fearon, D. James. 1991. "Counterfactuals and Hypothesis testing in Political science." *World Politics* 43(2): 169-195.
- Glaser S. Bonnie and Scott Snyder, "Impediments to U,S,-South Korea-China Coordination." *A Report of the CSIS Freeman Chair in China Studies* (May 2010).
- _____, "Responding to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A Report of the CSIS Freeman Chair in China Studies* (May 6, 2010).
- Goodman, Nelson. 1965. *Fact, Fiction, and Forecast*. Indianapolis: Bobbs-Merrill Company.
- Haverland, Markus. 2005. "Does the EU cause domestic developments: The problem of case selection in Europeanization research." *European Integration Online Papers* 9(2).
- Helmer, Olaf. 1967. *Analysis of the future: The Delphi method*. California: RAND Institute.
- Horowitz, Irving Louis. 2006. "Big Five and Little Five: Measuring Revolutions in Social Science." *Society* 43(3): 9-12.
- Lewis, K. David. 1973. *Counterfactual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bow, N. Richard. 2000. "What's so different about a Counterfactual?" *World Politics* 52(4): 550-585.

- _____. 2010. *Forbidden Fruit: Counterfactual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stro, Skylar Oriana, "Why China won't rescue North Korea: What to expect if things fall apart,"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18).
- Maxwell, S. David. 2010. "Catastrophic Collapse of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military", *DPRK Briefing Book* San Francisco: The Nautilus Institute (Apr 2010).
- Nye, S. Joseph and David A. Welch. 2011. *Understanding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Boston: Pearson Longman.
- Pettigrew M. Andrew, Richard W. Woodman, and Kim S. Cameron. 2001. "Studying Organizational Change and Development: Challenges for Future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4): 697-713.
- Postma, J. B. M. Theo. 2005. "How to improve scenario analysis as a strategic management tool."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72(2): 161-173.
- Ragin, Charles. 1987. *The Comparative Method*.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elina, Cynthia. 2006. "Trust and the illusive force of scenarios." *Futures* 38(1): 1-14.
- Snoek, Marco. 2003. "The use and methodology of scenario making." *European Journal of Teacher* 26(1): 9-19.
- Swart, R. J., P Raskin, and J Robinson. 2004. "The problem of the future: Sustainability science and scenario analysi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4(2): 137-146.

- Tetlock, E. Philip and Aaron Belkin eds. *Counterfactual Thought Experiments In World Politic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eber, Max. 1949. *The Methodology of the Social Science*. Illinois: The Free Press.
- Weitz, Richard. 2010. "Russia and the Koreas: Past Policies and future possibilities." *KEI Academic Paper Series* 5(2).
- Wortzel, M. Larry. 2009. "PLA 'Joint' Operational Contingencies in South Asia, Central Asia, and Korea," *Beyond the Strait: PLA Missions other than Taiwan* (Calisle, PA: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 Yoon, Tae-Ryong. 2009. "Korea-Japan Relations during the Second Republic of Korea: A Counterfactual Analysis of the Aborted Korea-Japan Normalization." *Journal of Peace Studies* 10(2): 103-125.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Strategy to North Korean Contingencies

Jaeho Kim*·Jeonghun Min**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China's strategy of military intervention in North Korea's hypothetical contingencies. The research question of the study is that what conditions China would consider for its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event of a civil war in North Korea, and which factors would affect the level of its intervention. To address these questions, we identify factors that could affect China's decision to intervene in the North and examine how those factors interact with each other in the hypothetical domestic-international environment. To this end, we introduce scenario techniques that play key roles in the future research as well as counterfactual analysis to enhance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analysis. The 'Counterfactuals-Scenario analysis' proposed by this study could be fruitful in that it provides a useful methodology for military and security studies.

Keywords : Military Intervention Strategy, North Korean Contingencies, Counterfactual Analysis, Scenario Analysis, Future research

투고일: 2020.02.10.

심사일: 2020.02.13.

계재확정일: 2020.03.02.

* Republic of Korea Naval Academy, 1st Author

**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Corresponding Author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0.3.5.1.57>

【연구논문】

우울증 사병탐지를 위한 벤더게슈탈트검사의 효용성

조양희*·최성진**

논문요약

본 연구는 이차적 이득을 얻기 위해 우울증을 가장하는 사병환자를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벤더게슈탈트검사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상 집단 33명, 우울 집단 37명, 우울 가장 집단 3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측정은 BGT의 모사단계를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채점체계는 Hutt의 정신병리 척도를 이용하였다. 집단별 정신병리 척도의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고, 다중비교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HABGT 정신병리 척도의 총점과 하위항목 중 용지회전, 곡선곤란, 지각회전, 단순화, 정교화 항목에서 우울 가장 집단이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보다 정신병리 척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상기 다섯 개 항목은 우울증을 가장하는 사병환자들을 선별하는데 중요한 항목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BGT가 사병 탐지를 할 때 질문지형 자기보고식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여, 짧은 시간 내에 실시가 가능하다. 아울러 임상 장면 이외에도 모병업무를 담당하는 병무청이나 상해 평가를 위한 사병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우울증, 사병탐지, BGT

I. 서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인류에게 가장 큰 부담을 초래하는 10대 질환 중 우울증을 3위로 보고하였고, 향후 2030년에는 1위가

* 동명대학교 복지산업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대학원생.

** 동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WHO 2011). 이러한 우울증은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정신 장애 중 하나이며, 인구의 10~20%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Riolo·Nguyen·Greden·King 2005). 이와 같이 우울증은 전 세계 인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정신장애인 동시에, ‘마음의 감기’라고 부를 정도로 흔한 장애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5.6%로, 약 64만 명의 인구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보건복지부 2016). 뿐만 아니라 우울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 5년간 30% 가량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뉴시스 2018). 그리고 정치지도자, 예술가, 연예인 등, 많은 유명인들이 우울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이처럼 우울증이 급격히 증가 하면서 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정신장애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정신의학적, 심리학 지식의 확대 보급되면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정신병리 증상을 가장하여 이차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자녀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군 면제나 대체복무 판정 결과를 받아, 증상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 발생한 ‘임병장 사건’이나 ‘윤일병 사건’ 등과 같은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와 관련된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현역 군인이나 징병검사 대상자의 정신병리와 적응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졌다(정나래·최선 2016).

전술한 바처럼 임상 현장에서도 신체 상해나 인지 및 정신 기능 장애를 가장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문제는 보험회사나 국가가 제공하는 보상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정나래·최선 2016). 이러한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환자들이 호소하는 장애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증상의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가려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박유정·박병관·이현수·염태호 1997).

이처럼 의도적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증상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과장하여 나타내는 것을 정신병리학에서는 사병(詐病, Malingering, 혹은 꾀병)이라 부른다(APA 2013). Grant와 Laurence(2000)에 따르면, 사병의 가장 큰 특징은 수행의

비일관성, 즉 환자의 보고와 전문가에 의해 관찰되는 행동 간의 불일치성이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이러한 행동 간의 불일치성을 탐지하기 위해 심리검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보통, 사병 탐지를 위한 심리검사 도구는 질문지형 자기보고식 검사와 투사 검사로 나눌 수 있다(Lubin·Larsen·Matarazzo·Sever 1985). 그 중 왜곡반응을 탐지하는 데 활용되는 대표적인 질문지형 자기보고식 검사로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2(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MMPI-2), (Butcher·Graham·Ben-Porth·Tellege·Dahlstrom 2001)와 정서성과 허위성, 강인성과 정신병적 경향성을 측정하는 검사인 아이젠크 성격차원검사(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EPQ), (Barrett·Eysenk 1984) 등이 있다. 그러나 MMPI-2와 같은 자기 보고식 검사와 관련된 연구들은 타당도 지표의 진단 기준점만으로는 사병의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구별해 내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되었다(Heinze·Purisch 2001; Lewis 2002). 특히, 질문지형 자기보고식 검사는 피검자가 의도하는 대로 반응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안면타당도가 높기 때문에 진단적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증상을 쉽게 가장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Frueh·Kinder 1994; Lees-Haley 1991).

반면, 투사 검사는 자기보고식 검사와 달리, 피검자의 내성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어떤 반응이 옳고, 그르며, 어떤 반응을 통해 방어할 것인지를 피검자가 잘 알 수 없다. 특히, 응답의 허위반응이 적고, 반응의 자유도가 넓어 개인의 독특한 문제가 제한 없이 반응될 수 있다. 아울러 성격의 여러 차원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여 다요인적 해석이 내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피검자는 주어진 자극에 몰입함으로써 방어적이지 않은 입장에서 반응을 하게 되며, 자극의 모호성 때문에 피검자가 의도한 목적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어렵다(Mehren·Lehman 1978). 이러한 투사 검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로샤검사(Rorschach Inkblot Test), 주제통각검사(Thematic Apperception Test), 벤더게슈탈트검사(Bender Gestalt Test; 이후 BGT) 등이 있다.

그 중 Lauretta Bender(1938)가 개발한 BGT는 행동상의 미성숙을 검사하는 신뢰로운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BGT는 검사가 간단하고, 실시와 채점이 다른

투사 검사에 비해 쉬우면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잘 입증되어 있다(Hutt 1977). 특히, 로샤검사, 주제통각검사와 달리 비언어적 검사이기 때문에 문화적 영향을 덜 받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BGT는 지각운동 발달 능력, 뇌손상과 기질적 기능장애, 조현병, 우울증, 발달적 미성숙 등을 진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Marjerrison·Krause·Keogh 196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차적 이득을 위해 가장 보고하는 사병 환자를 탐지하기 위해 우울증 환자와 우울증을 가장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증상을 꾸미기 어려운 투사검사인 BGT를 이용하여 정신병리 척도 항목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세웠다. 첫 번째는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및 우울 가장 집단 순으로 HABGT정신병리 척도 총점이 높을 것이다. 두 번째는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및 우울 가장 집단 간에 HABGT정신병리 척도의 하위 항목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BGT를 사용한 대표적인 국내 연구로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시지각 및 구성 능력 장애를 탐색한 것이 있다(이소영·오상우 1998). 그리고 강순아와 국승희(2000)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그 임상적 특징과 HABGT 반응을 비교한 연구도 있다. 아울러 이혜란과 김재환(2002)은 입원한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자아강도 수준에 따른 BGT의 수행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인지 손상이 심한 집단이나 정신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임상 장면에서는 우울증과 같은 신경증적 수준의 환자들도 많다.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BGT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Bender(1938)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사고의 흐름이 제한되고 지체되어 있어, 정서나 연상 작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였다. 또한, 심한 우울증 환자는 기분이 저조하여 BGT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경도의 우울증 환자는 도형을 지나치게 정확하고 세밀하게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Pascal과

Suttell(1951)의 연구에서는 BGT의 정신병리 하위항목 중 ‘공간사용’이 우울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으며, Donelly와 Murphy(1974)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엄격한 순서에 따라 도형을 모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Miller와 Hutt(1975)의 연구에서는 형태를 왜곡시킴으로써 일탈을 보이는 뇌손상환자와 달리, 우울증 환자들은 주로 형태를 변화시켜 도형을 모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Hutt(1985)는 HABGT 정신병리 척도의 하위항목 점수를 통해 다른 정신장애와 주요우울증을 감별하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우울증 환자에서 단순화 지표가 대립경향이나 가장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Hutt 1977).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BGT 연구로는 조선미와 최정운(1992)은 우울증 환자 집단과 정상인 집단 및 뇌손상 환자 집단의 수행 차이를 살펴 본 연구가 있다. 연구 결과, 정상인 집단과 우울증 환자 집단을 가장 잘 분류해주는 항목은 교차곤란, 곡선곤란, 폐쇄곤란이었다. 특히, 우울증 환자 집단은 폐쇄곤란의 항목에서 정상인과 뇌손상 환자 집단 보다 우수한 수행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우울증 환자가 지나치게 도형을 세밀하게 그린다고 제안한 Bender의 제안과도 일치했다(조선미·최정운 1992). 그리고 주요 우울장애에서 정신증 증상의 유무에 따른 BGT의 수행특성을 알아보았다(손옥선·이은정·김희철 2007). 그 결과 중첩, 폐쇄곤란, 곡선곤란, 각의 변화, 지각적 회전, 퇴영, 중복곤란 항목에서 정신증이 있는 심한 정도의 주요 우울 환자 집단과 주요 우울 환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김유진과 최성진(2015)는 BGT를 사용하여 신경증 집단과 정신증 집단의 부정왜곡 반응을 탐지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Hutt의 총점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Hutt의 정신병리 하위항목 중 도형A의 위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는 신경증 집단을 대상으로 부정왜곡을 탐지하려고 시도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 하지만,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BGT를 이용한 사병 탐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III. 방법

1. 연구대상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A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DSM-5(APA 2013)에 근거하여 주요우울장애 및 지속성 우울장애로 진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총 48명 환자 중 우울증의 절단점 기준인 BDI 16점 이하인 9명을 제외한 37명의 환자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정상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은 총 82명 중 SCL-90-R의 T점수가 경계선 수준인 50점 이상과 BDI 16점 이상인 15명을 제외한 67명을 두 집단에 무선 할당하였다. 참여자는 본 연구 목적과 검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필 서명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2. 측정도구

1)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간이정신진단검사는 Dorogatis(1977)가 개발한 'Symptom Checklist-90-Revision'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표준화한 9개의 척도로 이루어진 자기 보고형 다차원 증상 목록 검사이다(김광일·김재환·원호택 1984). 이는 9개의 증상차원과 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응답자는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0점)'에서 '아주 심하다(4점)'까지 5점 평점으로 채점하게 되어 있다. 본 검사에서는 점수의 합이 낮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SCL-90-R은 신체화, 강박증,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의 총 9개의 증상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김광일·김재환·원호택 1984).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2였다.

2) 백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DI(Beck·Ward·Mendelson·Mock·Erbaugh 1961)는 우울증상을 바탕으로 한 증상의 정도와 유형을 가늠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다. 문항은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을 포함한, 21개 문항의 자기 보고식 검사이다. 이 검사는 각 항목마다 우울증상의 심도를 기술하는 4문장 중, 지난 1주 동안 피검자의 경험에 적합한 문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한 우울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 항목은 0점에서 3점의 점수가 할당되고, 전체 점수의 범위는 0~63점까지이며,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울 증상에 심각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79이었다.

3) BGT(Bender Gestalt Test)

BGT(Bender 1946)는 미국예방정신의학협회 간행의 원판으로 9매 1조로 되어 있다. 가로 6인치, 세로 4인치 크기의 백색 바탕 위에 기하학적 도형이 그려져 있으며, 각 카드 뒷면에는 도형 A와 도형 1~8까지의 명칭이 붙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4였다.

3. 통계분석

이차적 이득을 얻기 위해 우울증을 가장 하는 사병환자를 탐지하기 위해 정상 집단, 우울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 간에 차이 비교를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정신병리 척도의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또한, 세 집단 간의 총점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사후비교를 위해 Scheffé 다중비교법을 사용하였다.

IV. 결 과

1. HABGT 하위항목별 차이 분석

HABGT 정신병리척도의 하위항목 중 특별히 어떤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한 결과 <표 1>과 같다.

<표 1> HABGT 정신병리척도 하위 항목별 일원배치 분산분석결과

항목	정신 병리 척도			F	사후검증 (Scheffé)
	정상	우울	우울 가장		
배열순서	4.00 (2.25)	5.22 (3.04)	5.68 (2.88)	3.31*	1=2, 2=3, 1<3
도형A의 위치	7.24 (4.06)	8.14 (3.47)	7.26 (3.74)	.66	1=2=3
공간사용	3.18 (3.92)	5.86 (4.55)	4.71 (4.50)	3.34*	1<2, 2=3, 1=3
중첩	1.41 (.86)	2.01 (1.70)	2.02 (2.27)	1.41	1=2=3
용지회전	1.00 (.00)	1.24 (1.03)	2.21 (2.40)	6.21**	1=2<3
폐쇄곤란	3.39 (2.45)	4.83 (2.60)	5.90 (2.44)	8.51***	1=2, 2=3, 1<3
교차곤란	1.45 (1.33)	2.78 (2.29)	1.97 (1.61)	4.85**	1<2, 2=3, 1=3
곡선곤란	2.00 (1.44)	2.41 (2.06)	6.03 (3.02)	32.63***	1=2<3
각의변화	1.30 (.77)	1.62 (.95)	1.88 (1.86)	1.72	1=2=3
지각회전	1.36 (.99)	1.32 (1.55)	2.59 (3.15)	4.02*	1=2<3
퇴영	4.36 (3.33)	6.27 (3.42)	7.97 (3.52)	9.28***	1=2, 2=3, 1<3

단순화	2.91 (2.47)	1.89 (1.85)	4.88 (3.09)	12.93***	1=2<3
단편화	1.00 (.00)	1.32 (.94)	1.26 (1.54)	.93	1=2=3
중복곤란	1.41 (1.73)	1.85 (2.08)	2.32 (2.83)	1.37	1=2=3
정교화	1.00 (.00)	1.00 (.00)	1.71 (1.66)	6.32**	1=2<3
고집화	1.64 (1.45)	1.24 (.83)	1.53 (1.73)	.78	1=2=3
재묘사	2.09 (2.19)	1.73 (1.30)	1.53 (1.57)	.92	1=2=3

* $p < .05$. ** $p < .01$. *** $p < .001$. ()안은 표준편차, 1=정상 집단, 2=우울 집단, 3=우울 가장 집단

그 결과 첫째, 도형 A의 위치, 중첩, 각의변화, 단편화, 중복곤란, 고집화, 재묘사 항목에서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우울 가장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공간사용, 교차곤란 항목에서는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정상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 우울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배열순서, 폐쇄곤란, 퇴영 항목에서는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우울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정상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용지회전, 곡선곤란, 지각회전, 단순화, 정교화 항목에서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울 가장 집단은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HABGT 집단 간 총점 차이 분석

집단에 따라 정신병리 척도의 총점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또한 세 집단 간의 총점 차이를 Scheffé의 다중비교법을 사용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2〉 HABGT 정신병리 척도 총점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항목	정신 병리 척도			F
	정상	우울	우울 가장	
PSV 총점	40.30(9.25)	50.16(8.39)	61.45(11.54)	39.21***

〈표 3〉 HABGT 정신병리 척도 총점 Scheffé의 다중비교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의 합	평균 자승화	사후검증 (Scheffé)
집단 간	2	7505.90	3752.95	1<2<3
집단 내	101	9666.34	95.71	
전 체	103	17172.24	F=39.21***	

* $p < .05$. ** $p < .01$. *** $p < .001$. 1=정상 집단, 2=우울 집단, 3=우울 가장 집단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세집단의 정신병리 척도 총점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p < .05$)가 있었다. 아울러 세 집단의 Scheffé의 다중비교법을 사용하여 사후비교를 한 결과는 우울 가장 집단의 총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우울 집단, 정상 집단 순이었다.

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이차적 이득을 위해 우울증을 가장하는 사병환자를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벤더게슈탈트검사의 효용성을 알아본 것이다. 본 연구의 나타난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및 우울 가장 집단 간의 HABGT 정신병리 척도의 총점에서의 차이가 있을 것이며, 우울 가장 집단의 총점이 가장 높을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HABGT 정신병리 척도의 총점이 우울증을 가장 하는 환자를 탐지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의미한다. 이는 ‘HABGT에서 중요한 것은 척도의 총점이다.’ 라고 하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Hutt 1985). 특히, 우울 가장 집단이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에 비해 HABGT 정신병리 척도의 총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우울 가장 집단이 이차적 이득을 위해 자신의 증상을 더 과장되고 심각하게 보이려고 하였음을 시사한다.

둘째,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및 우울 가장 집단 간의 HABGT 정신병리 척도의 하위 항목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두 번째 연구가설도 지지가 되었다. HABGT 정신병리 척도 하위 항목별 집단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배열순서, 도형 A의 위치, 중첩, 각의 변화, 단편화, 중복곤란, 고집화, 재묘사 항목에서는 정상 집단, 우울 집단, 우울 가장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8개의 항목들은 주로 뇌손상환자에게 나타나는 항목이며, 우울증 및 우울증을 가장하는 사병환자를 탐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항목임을 의미한다.

셋째, 공간사용, 교차곤란 항목에서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Pascal과 Suttell(1951)의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공간사용’ 항목은 우울증을 탐지하기 적합한 항목이며, 위축된 성향이나 심리사회적 환경에서 제한된 자기표현을 암시한다. 즉, 우울한 환자의 경우 제한된 공간을 사용하여 도형을 그린다는 것이다. 조선미와 최정윤(1992)은 우울증 환자와 정상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교차곤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이는 본 연구 결과와 같았다. 이 항목은 주로 형태를 왜곡시킴으로써 일탈을 보이는 정신증적 환자들과 달리 우울증 환자들은 주로 형태를 변화시켜 도형을 묘사한다는 것을 반영한다(조선미·최정윤 1992). 즉, 우울증 환자의 특징인 위축된 성향과 우울감이 ‘공간사용’ 과 ‘교차곤란’ 항목에서 가장 잘 드러나며, 이는 BGT 하위항목 중 우울증 환자를 선별하는데 있어 가치 있는 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배열순서, 폐쇄곤란, 퇴영 항목에서는 정상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Donnelly와 Murphy(1974)에 따르면, ‘배열순서’ 항목은

우울증 환자는 엄격한 순서에 따라 도형을 모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상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그 외에 우울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우울 가장 집단이 우울증 환자들은 도형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그리지 않고, 혼란스럽게 그릴 것이라고 생각하여 도형의 배열을 질서 정연하지 않고 더 혼란스럽게 그렸음을 반영하는 것 같다. 즉, 우울 가장 집단은 ‘폐쇄곤란’ 과 ‘퇴영’ 항목에서 정상 집단에 비해 도형을 세밀하게 그리지 않고, 도형의 여러 부분을 결합해서 그리거나 서로 근접되어야 할 두 그림을 접촉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형태를 변화시켜 도형을 모사한 것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배열순서, 폐쇄곤란, 퇴영’ 항목은 정상 집단과 우울 가장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난 항목임으로 정상 인들 중 우울증을 가장 하는 환자를 탐지하기에 좋은 항목임을 의미한다.

다섯째, 용지회전, 곡선곤란, 지각회전, 단순화, 정교화 항목에서 우울 가장 집단은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항목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울 집단에 비해 우울 가장 집단은 용지를 회전하거나 지각 회전을 하여 도형을 그린 경우가 많았다. 또한, 충동적으로 도형을 묘사하여 곡선을 더 많이 그렸으며, 도형을 단순하게 모사하였다. 아울러 조잡하게 도형을 그려 도형의 형태가 현저하게 변해 버린 경우도 있었다. 이는 우울 가장 집단이 우울 집단에 비해 도형을 충동적이고 우울환자들 보다 자신의 증상을 더 가장되게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우울 가장 집단은 BGT 모사단계를 한 후, “우울증을 가장 하는 환자들은 도형을 어떻게 그릴 것 같아요?” 라는 질문에 대다수는 “대충 그릴 것 같다.”, “힘없이 그릴 것 같고, 그림을 다 그리지 않을 것 같다.”, “그림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무언가 이상하게 그릴 것 같다.”라고 답을 하였다. 즉, 우울 가장 집단은 정상 집단과 우울 집단에 도형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형태를 변형하여 표현하고 더 가장되게 표현 하였다. 이에 ‘용지회전, 곡선곤란, 지각회전, 단순화, 정교화’ 항목은 우울증 환자 중 우울증을 가장 하는 사병환자를 탐지하는데 좋은 항목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는 우울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및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체, 인지 기능장애를 가장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 허위반응이 적고 간편하게 정신병리를 변별해 낼 수 있는 BGT를 통해 우울증을 사병 탐지에 효용성을 알아보았다는 것이 중요한 의의가 될 수 있다.

두번째로는 본 연구가 정상 집단, 우울 집단, 우울 가장 집단을 대상으로 BGT를 실시하여 우울증을 가장 하는 사병환자를 탐지하는데 효과적임을 밝혀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정상 집단, 우울 집단, 우울 가장 집단 간의 결과 분석을 통해 HABGT 정신병리 척도의 총점과 하위항목 중 '용지회전, 곡선곤란, 지각회전, 단순화, 정교화' 항목이 우울증을 가장하는 사병환자들을 선별하는데 중요한 항목임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질문지형 자기보고식 검사의 안면타당도가 높기 때문에 진단적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증상을 쉽게 가장할 수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검사 자체가 간단하다.

세번째로는 짧은 시간 내에 탐지가 가능하여 임상 장면 이외에도 모병업무를 담당하는 병무청이나 상해 평가를 위한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은 우울증 환자 37명과 정상 집단 33명, 우울 가장 집단 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비교적 적은 인원으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표본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병 환자들의 표본이 실제 장면에서의 사병 환자들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가의 외적 타당도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실제 사병을 보이는 사람들은 보상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어 복잡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상대적으로 가장과 관련한 국내 연구가 부진한 실정이며, 특히 BGT를 사용한 가장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후속 연구를 통해 추후검사를 실시하여 BGT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넷째, 유사한 연령대의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을 가장하는 집단이 BGT검사를 통해 어떤 항목에서 가장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실제 임상장면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정신과적 진단들을 목표증상으로 해서 증상을 가장하는 시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우울증과 성격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진단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순아·국승희. 2000. “외상성 뇌손상 환자군간 임상적 특징과 HABGT반응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제19권 4호: 819-829.
- 김광일·김재환·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39.
- 김유진·최성진. 2015. “BGT를 통한 Faking-Bad 반응 탐지.” 『한국임상심리학회 봄학술대회 발표초록집』, p. 716. 5월 15일. 부산: Bexco.
- 뉴스스. 2018. ‘건강검진 제외’ 청년 719만명도 내년부터 혜택. 우울증.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19_0000368123&cID=10818&pID=10800 (검색일: 2019.6.15).
- 박유정·박병관·이현수·염태호. 1997. “사병 (Malingering) 집단의 벤튼 신경심리 검사수행패턴.” 『한국심리학회지』 제16권 2호: 405-422.
- 보건복지부. 2016.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서울: 보건복지부.
- 손옥선·이은정·김희철. 2007. “주요우울증에서 정신증적 증상의 유무에 따른 BGT 수행 특성.”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7년 1월호: 220-221.
- 이소영·오상우. 1998. “HABGT 에 나타난 외상성 두뇌 손상 환자의 시지각 및 구성 능력 장애.” 『한국심리학회』 제17권 1호: 311-317.
- 이혜란·김재환. 2002. “입원한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아강도 (Es) 수준에 따른 BGT 수행 비교연구.” 『한국임상심리학회』 제21권 1호: 235-245.
- 정나래·최선. 2016. “임상장면에서 사병 탐지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제2권 2호: 115-144.
- 조선미·최정윤. 1992. “우울증환자의 BGT 수행특성 및 감별진단.” 『한국심리학회지』 제11권 1호: 77-89.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merican Psychiatric Pub.

- Barrett, P., and Eysenck, S. 1984. "The assessment of personality factors across 25 countr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6), 615-632.
- Beck, A. T., Ward, C., Mendelson, M., Mock, J., and Erbaugh, J. 1961.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Arch Gen Psychiatry*, 4(6), 561-571.
- Bender, L. 1938. *A Visual Motor Gestalt Test and Its Clinical Use*. American Orthopsychiatric Association Research Monograph, No 3. NY: American Orthopsychiatric Association.
- Bender, L. 1946. *Bender Motor Gestalt Test: Cards and Manual of Instructions*. NY: American Orthopsychiatric Association.
- Butcher, J. N., Graham, J. R., Ben-porath, Y.S, Tellegen, A., Dahlstrom, W.G., and Kaemmer, B. 2001. *MMPI-2(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Manual for Administration, Scoring, and Interpretation, revised edition*.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Derogatis, L. R. 1977. *The SCL-90 Manual I: Scoring, Administration and Procedures for the SCL-90*. Baltimore, MD: Clinical psychometric research.
- Donnelly, E. T., and Murphy, D, L. 1974. "Primary Affective Disorder: Bender-Gestalt Sequence as an Indicator of Impulse Control." *Perceptual and Motor Skill*, 38, 1079-1082.
- Frueh, B. C., and Kinder, B. N. 1994. "The susceptibility of the Rorschach Inkblot Test to malingering of combat-related PTSD."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2(2), 280-298.
- Grant, L. I., and Laurence, M. B. 2000. "Detecting exaggeration and malingering in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Journal of Head Trauma Rehabilitation*, 15(2), 829-858.

- Heinze, M. C., and Purisch, A. D. 2001. "Beneath the mask: Use of psychological tests to detect and subtype malingering in criminal defendants."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Practice*, 1(4), 23-52.
- Hutt, M. L. 1977. *The Hutt Adaptation of the Bender-Gestalt Test (3rd ed.)*. NY: Grune & Stratton.
- Hutt, M. L. 1985. *The Hutt Adaptation of the Bender-Gestalt Test (4th ed.)*. NY: Grune & Stratton.
- Lees-Haley, P. R. 1991. "MMPI-2 F and FK scores of personal injury malingerers in vocational neuropsychological and emotional distress claims." *American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 Lewis, B. 2002. *What Went Wong?: Western Impact and Middle Eastern Response*. Oxford University Press.
- Lubin, B., Larsen, R. M., Matarazzo, J. D., and Seever, M. 1985. "Psychological test usage patterns in five professional settings." *American Psychologist*, 40(7), 857.
- Marjerrison, G., Krause, A. E., and Keogh, R. P. 1968. "Variability of the EEG in schizophrenia: Quantitative analysis with a modulus voltage integrator." *Electroencephalography and Clinical Neurophysiology*, 24(1), 35-41.
- Mehren, W. A., and Lehmann, I. J. 1978.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Education and Psychology*. NY: Bolt, Rinehart and Winston.
- Miller, L. J., and Hutt, M. L. 1975. "Psychopathology scale of the Hutt Adaptation of the Bender-Gestalt Test: Rel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39(2), 129-130.
- Pascal, G. R., and Suttell, B. J. 1951. *The Bender-Gestalt test: Quantification and Validity for Adults*.

- Riolo, S. A., Nguyen, T. A., Greden, J. F., and King, C. A. 2005. "Prevalence of depression by race/ethnicity: findings from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II."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5(6), 998-1000.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Global Status Report on Noncommunicable Disease*.

부록. Hutt BGT 정신병리 척도의 채점표

변인		도형(일탈이 일어난 도형)						척도가												
1	배열순서	변인	정상(1회)	아주엄격(0회)	불규칙(2회 이상)	혼란														
		PSV	1.0	4.0	7.0	10.0														
2	도형 A의 위치	변인	정상	자기중심적			비정상													
		PSV	1.0	5.0			10.0													
3	공간사용	변인	정상			비정상														
		횟수	0	1	2이상															
		PSV	1.0			10.0														
4	중첩	변인	중첩경향																	
			없음	있음	보통		극단적													
		횟수	0	1	2		3													
		PSV	1.0	2.5	4.0		5.5													
		변인	중첩																	
			있음	보통		극단적														
5	용지회전	횟수	없음	1~2개		3~8개		전부												
		PSV	1.0	5.5		7.0		10.0												
		도형	A			2			4			7			8					
6	폐쇄곤란	횟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채점	1	2	3	0	1	2	1	2	3	1	2	3	1	2	3			
		소점	0			1~2			3~5			6~8			9이상					
		PSV	1.0			3.25			5.5			7.75			10.0					
7	교차곤란	도형	6						7											
		소점	0			1			2			3이상								
		PSV	1.0			4.0			7.0			10.0								
8	곡선곤란	도형	4						5						6					
		소점	0			1			2			3								
		PSV	1.0			4.0			7.0			10.0								

변인		도형(일탈이 일어난 도형)							척도가			
9	각의 변화	도형	2	3	4	5	6	7				
		소점	0	1	2	3	4	5				
		PSV	1.0	2.0	4.0	6.0	8.0	10.0				
10	지각적 회전	도형	A	1	2	3	4	6	8			
		회전	°	°	°	°	°	°	°			
		기준	4°이하	5°~14°	15°~79°	80°~180°						
		PSV	1.0	4.0	7.0	10.0						
11	퇴영	도형	1		2		3		5			
		발생	×	○	×	○	×	○	×	○		
		소점	0		1		2		3			
		PSV	1.0		4.0		7.0		10.0			
12	단순화	도형	A	1	2	3	4	5	6	7	8	
		소점	0		1		2		3			
		PSV	1.0		4.0		7.0		10.0			
13	단편화	도형	A		4		7		8			
		소점	0		1		2		3			
		PSV	1.0		4.0		7.0		10.0			
14	중복곤란	도형	A		4		6		7			
		소점	0		1		2					
		PSV	1.0		5.5		10.0					
15	정교화	도형	A	1	2	3	4	5	6	7	8	
		소점	0		1		2		3			
		PSV	1.0		4.0		7.0		10.0			
16	고집화	도형	1		2		3		5		6	
		소점	0		1		2		3			
		PSV	1.0		4.0		7.0		10.0			
17	재묘사	도형	A	1	2	3	4	5	6	7	8	
		소점	0	1	2	3	4					
		소점	0		1		2		3		4	
		PSV	1.0		3.25		5.5		7.75		10.0	
								총 점				

The Utility of the Bender Gestalt Test to Detect Malingered Depression

Yang Hee Jo*·Seong Jin Cho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utility of the Bender Gestalt Test to Detect malingered depression. For this purpose, the study was conducted in 33 normal, 37 depressed, and 34 depressed malingerde. The measurement was performed using the copy stage of BGT, and the scoring system used was Hutt psychopathology scale. The measurement was performed using the simulation stage of BGT, and the scoring system used was Hutt psychopathic scale.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verified by calculating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each group of psychopathology scale, and multiple comparison method was performed. As a result, the scores of malingered depressive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those of normal group and depressed group in paper rotation, curvature, perception rotation, simplification and refinement among HABGT psychopathology scale. The above five items were important for screening privately ill patients pretending to be depressed. These results can be implemented in a short time,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questionnaire self-reported test when the BGT detects a malingering. And in addition to the clinical scene, it may be useful for evaluating the military service in charge of recruitment or for evaluating injury.

Keywords : Depression, Malingering, BGT

투고일: 2020.01.30.

심사일: 2020.02.13.

게재확정일: 2020.02.22.

* Graduate student, Tongmy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Assistant professor, Tongmyong University.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0.3.5.1.79>**【연구논문】****여성장애인전문복지관 이용경험 연구***

박시은** · 전지혜***

논문요약

본 연구는 여성 장애인복지관의 이용경험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를 면밀하게 탐색하고 여성장애인 복지사업 증진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의도적 표집을 통해 여성 장애인복지관 이용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을 17명을 모집하여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했다. 분석결과, 여성장애인에게 여성 장애인복지관은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공간이었다. 또한 여성장애인들은 여성 장애인복지관 이용을 통해 개인차원, 가족차원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 장애인복지관은 여성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시스템과 운영방식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은 낮은 장애이해가 문제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 고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최적의 공간은 여성장애인복지관이었다. 향후 여성장애인 전문복지관 증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건강, 직업, 출산·가사·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지역 내 또래 여성장애인과의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을 통해 여성장애인복지 서비스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주제어: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전문복지관, 복지관 이용, 장애인복지관 기능

* 본 연구는 2019년 성프란치스코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연구용역 수행시 인터뷰한 자료를 재분석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료를 제공해주신 성프란치스코 장애인복지관에 감사드립니다.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생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I. 서론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장애인복지시설이다(보건복지부, 2019). 현재, 장애인에 대한 지원 패러다임이 사회적 모델과 당사자의 권리중심실천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장애인복지관 역시 이에 맞는 새로운 기능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다(윤재영 외, 2017). 특히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개별화 지원과 지역사회 중심의 권리기반 서비스 제공 등은 장애인복지관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실천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으며(김용득, 2017), 그 주요 논의에는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욕구와 특성 변화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고령화, 중증화, 발달장애인 이용자비율의 증가 등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인 것이다(윤재영 외, 2017). 이에 덧붙여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로서 고려해야 할 대표적인 집단이 여성 장애인이다. 장애인 이용자 특성은 주로, 연령이나 장애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성별특성에 따른 욕구와 서비스 이용이 차이가 있는 만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차별에 노출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정책 영역에서 모성권에 대한 보장 외에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으며, 최근 이들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새로운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서해정, 장명선, 2018; 최선경, 2018). 기존 남성장애인 경험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여성장애인의 특수한 경험을 충분히 보장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이주연, 최지훈, 2017).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지원과 모성권 보장의 필요성은 다수의 논문에서 다뤄졌으며, 정부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성장애인 대상 법안 및 정책을 마련하기도 했다¹⁾.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비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제

1)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제34조(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보건복지부(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가족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고용

적 보장 수준은 아직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서해정, 장명선, 2018, 2019, 김지영 외, 2018, 김성희 외, 2017).

이러한 여성장애인 정책의 부재는 실천현장에서도 서비스 부재로 이어진다.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여성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초점을 맞춘 복지제공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고, 여성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기관일 뿐만 아니라(김성희 외, 2017), 지역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자원과 지원체계를 확장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관이다(강승원, 2015; 최선경,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여성장애인 대상 서비스는 그들의 욕구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에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장애인 전문 장애인복지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전국에 2곳뿐이고(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20), 일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여성장애인 대상 사업운영 여부와 사업 내용 등을 조사한 기존 보고서는 존재하지만(여성가족부, 2010, 전지혜 외, 2019), 실제 여성장애인의 여성 장애인복지관 이용경험이 어떠했고, 그 경험은 일반 장애인복지관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성장애인 전문복지관은 민간차원의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역사적으로 사회구조적 차별을 받아온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의 집단에게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다양한 제도로 실현되고 있다(이재희, 2016). 여성장애인은 차별받는 대표적인 소수 집단으로서, 이러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필요한 대표적인 대상이다. 여성장애인에게 그들이 가진 특수한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논의는 확대되고 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거나 여성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를 남성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이런 상황속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한 형태로 여성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간으로 여성장애인 전문복지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성 전문 장애인복지관의 필요성이 높지 않고, 일반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장애인복지관 이용경험을 알아보고 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여성장애인 전문 복지관은 서울에 위치한 성프란치스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 뿐인데, 본 연구에서는 여성 전문 장애인복지관 이용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여성 장애인복지관의 특징과 일반 장애인복지관과의 차이, 이용의 한계 등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복지관의 여성장애인 대상사업의 필요 또는 전망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함으로써 당사자 권리중심의 복지관 사업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 및 권리에 관한 선행연구

여성장애인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로 꼽힌다. 남성장애인에 비해 고용 및 교육수준이 낮고,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처할 확률이 높으며, 폭력 및 차별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고령비율도 남성장애인보다 높다.(장애인실태조사, 2017; 경제활동실태조사, 2018). 이에 최근 몇년간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차별에 노출된 여성장애인의 삶과 실태에 대해 조사하거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발표하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는 국내 여성장애인의 실태를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보고서이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김성희 외, 2017)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실태와, 여성장애인으로서 어려운 점 등을 밝히고 있으며, 여성장애인들이 임신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자녀양육지원, 활동지원인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장애인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 관련 연구는 임신·출산·양육을 포함한 모성권에 대해 다른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주연, 최지훈(2017)은 전라북도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성권 관련 경험실태와 욕구 등을 조사하고, 복지정책의 개선방향

및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대부분이 남성장애인의 경험과 생활실태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여성장애인의 특수한 욕구(특히 모성권)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해정, 장명선(2018)은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모성권 개념 및 보장방안에 대해 연구했는데,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은 사회적 권리로서, 임신과 피임, 출산에 대한 통제 및 선택권, 친권 및 육아권 등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 및 시민권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여성장애인의 높은 성범죄 피해실태와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한 김지영 외(2018)의 연구가 있는데, 여성장애인의 안전권을 논의하였다. 한편 사회적 지원정도가 기혼 여성 지적장애인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한 강승원(2015)의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에 집중했다. 두 연구 모두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 활동지원제도와 성견후견제도 확대를 제안했고, 여성장애인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평생교육 및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 자녀양육 지원, 가사지원, 공식적·비공식적 지원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최근 들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재생산권 또는 모성권 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때에도 결혼과 임신, 출산, 자녀양육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여성장애인의 재생산권과 모성권 보장은 사회적 권리로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여성장애인의 삶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여성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조사하고 파악하는 연구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의 선행연구 모두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취약성과 높은 복지욕구에 비해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것을 문제 삼았다. 즉, 여성장애인의 실질적 사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여성장애인의 안전권과 모성권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둔 것에서 벗어나, 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 자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여성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여성장애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복지관이용경험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가 충분히 충족되는지 향후 개선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과 안전권 보장에서의 취약성만을 논의하는 차원과 달리 여성장애인의 종합적인 복지 욕구를 검토하고 향후 여성장애인 복지사업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장애인 복지관 이용에 관한 선행연구

장애인복지관은 여성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로서(김성희 외, 2017), 향후 여성장애인 대상 복지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현재까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여성장애인 대상 사업운영 여부와 사업 내용 등을 조사한 연구로는 여성가족부(2010)와 전지혜 외(2019)가 있으며, 그 외 여성장애인 대상 장애인복지관 운영방향 및 역할에 대한 고민을 담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이준상 외, 2017. 최선경, 2018, 윤재영 외, 2017).

여성가족부(2010) 연구는 여성장애인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전국 장애인복지관의 여성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및 여성장애인 이용 현황을 조사·분석했는데,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는 대부분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운영예산과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장애인에게 고용지원 및 직업재활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달리 향후 여성장애인 대상 사업으로 스포츠 여가활동 사업 신설을 제안하였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여성가족부(2010)의 연구와 달리 전지혜 외(2019)는 전국 장애인복지관의 종사자 및 여성장애인 이용자의 여성장애인 사업에 대한 필요도와 인식차이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복지관이 여성장애인 대상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주로 자녀양육, 일자리 및 자기개발,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 사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기관 및 종사자,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응답은 각각 차이를 보였다. 기관 대표와 종사자는 '가사·양육지원'을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 사업 영역으로 인식한

반면에, 여성장애인 당사자는 장애유형이나 연령대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직업(취업·창업)지원’과 ‘건강·의료지원’에서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가사·양육지원의 필요성 인식은 높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실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사업은 큰 차이를 보였다. 기관에서는 대체로 여성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장애인 당사자는 고령여성장애인 건강관리를 가장 필요로 했다. 종사자의 경우 여성장애인 상담 및 권리구제(성희롱, 성폭력 피해 등)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이기도 했다.

이준상 외(2017)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의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현황 및 지원정책을 조사하고, 여성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등을 통해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의 기본모형을 개발했다. 기본모형의 기능 및 역할은 젠더 및 장애관점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능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으로 기본모형 운영을 위해서는 공간 확충과 인력 및 전문성 확보, 조직개편,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운영 자율성 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을 함께 강조했다.

최선경(2018)은 여성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인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거점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기초상식 정보제공 매뉴얼 개발, 출산관련 상담서비스 지원, 자조모임 활성화, 가족 개별프로그램 제공, 의료기관 연계, 사례관리 지원 등의 구체적 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여성 전문 장애인복지관의 필요성이 높지 않고, 일반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여성장애인의 여성 장애인복지관 이용경험이 어렵었고, 그 경험은 일반 장애인복지관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윤재영 외(2017)은 장애인복지관이 변화하는 시대에 알맞게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는 지원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하고, 이용자에 맞는 지역공

동체를 꾸리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가 점차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변화 또한 장애인복지관이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기도, 여성장애인의 장애인복지관의 이용경험을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여성장애인의 욕구보다는 종사자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가부(2010)의 연구도 종사자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하였고, 이준상 외(2017)의 연구도 젠더 관점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으나 당사자의 실질적인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최선경(2018)도 모성권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지혜 외(2019)의 연구는 종사자와 장애인이용자의 욕구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질적 자료를 통해 어떤 욕구를 어떤 방식의 사업으로 제공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 전문복지관 및 다른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복지관 등을 이용해 본 여성장애인에 초점을 두고 이용경험을 알아보려 한다. 향후 여성장애인 복지사업의 방향정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여성 전문 장애인복지관인 성프란치스코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 중 연구주제에 대해 풍부하고 적절한 구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모집했다. 참여자 모집시 장애유형과 연령, 여성장애인복지관 외 타 장애인복지기관 이용경험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한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노력했으며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 뒤 자발적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연구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3-4개의 그룹 내 6명 정도의 참여자를 배치하는 제안(Rabiee, 2004)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했다.

연구 참여자로서 최종 선정된 여성장애인은 총 17명이며,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인터뷰 가능 일정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했다.

그룹 1의 경우 지체·뇌병변 및 시각장애, 그룹 2는 지체·뇌병변, 그룹 3은 청각장애, 그룹 4는 발달장애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애초에 장애유형을 고려해 그룹을 나누고자 하였으나, 참여자의 일정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성되었다. 다음은 연구에 참여한 여성장애인 17명의 특성이다.

〈표 1〉 연구에 참여한 여성장애인의 특성

FGI 그룹	참여자	만 나이	장애유형	여성 장애인복지관 이용연수	타복지관 이용경험
1	1	47세	시각장애	-	유
	2	30세	시각장애	-	유
	3	52세	지체장애	-	유
	4	43세	뇌병변장애	-	유
	5	38세	지체장애	4	유
2	6	48세	지체장애	-	유
	7	27세	지체장애	15	유
	8	57세	뇌병변장애	4	유
	9	61세	뇌병변장애	2	유
3	10	62세	청각장애	10	유
	11	42세	청각장애	17	유
	12	51세	청각장애	14	유
	13	41세	시각장애	11	유
4	14	60세	지체장애	5	유
	15	27세	발달장애	8	유
	16	39세	발달장애	-	유
	17	44세	발달장애 모(母)	11	유

2.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여성 전문 장애인복지관 이용경험을 초점집단인터뷰(FGI)를 통해 조사했다. FGI는 특정집단을 반드시 대표할 수는 없지만 목적성이

분명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그룹인터뷰를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다(Thomas et al, 1995, Rabiee, 2004 재인용). 집단역동(group dynamics)은 FGI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그룹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기 때문에 개별 인터뷰에 비해 더 깊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Thomas et al, 1995). 이는 여성장애인들의 여성 전문 장애인복지관 이용경험과 인식, 복지서비스 욕구 등을 더욱 생생하고 풍부하게 풀어낼 수 있다.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1팀당 1회씩 총 4회 진행되었으며, 1팀당 여성장애인 4-5명이 참여했다. 각 면접은 성프란치스코 장애인복지관 내 프로그램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이뤄졌고, 면접 당시 기록한 현장노트, 인터뷰 내용을 녹음한 파일, 녹음파일을 전사한 기록자료 등을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했다. 인터뷰는 반구조화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여성장애인의 여성전문 장애인복지관 이용경험과 일반 장애인복지관 및 일반 복지시설 이용경험, 각 경험의 비교를 통한 여성전문 장애인복지관(또는 서비스)의 의미, 참여자들이 여성장애인으로서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통해 여성장애인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여성대상 복지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했다.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FGI 질문내용

구분	질문
여성장애인 복지관 이용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복지관을 언제부터 어떻게 이용하게 되었나요? - 여성장애인복지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 인가요? - 여성장애인복지관에서 이용해본 사업·서비스 중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성장애인복지관 이용의 좋은점·나쁜점은 무엇인가요?
복지기관 이용경험 (여성장애인 복지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장애인과 함께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그 경험은 어떠했나요? - 비장애 여성과 함께 복지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그 경험은 어떠했나요?

<p>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성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p>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구자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공통된 특성인 여성 전문 장애인복지관 이용경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화함으로써 연구주제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얻고자 노력했다. 또한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러운 토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참여자의 반응 및 답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질문을 변형하거나 추가했다. 이를 통해 인터뷰 상황과 집단 내 나타나는 역동을 활발하게 촉진시킬 수 있었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참여자 모집시 뿐만 아니라, 인터뷰 실시 전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과 인터뷰 내용, 연구참여로 인한 이익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연구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연구진이 보관했다. 또한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는 것과 원하는 경우 어느 때나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었으며 인터뷰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했다. 전반적인 인터뷰 진행은 연구책임자가 담당했고, 연구조교가 참관자로 자리에 함께 했다. 필요에 따라 수어 통역사를 함께 배치하여 청각장애인 참여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Connelly와 Clandinin(2000)의 주제어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인터뷰를 통해 얻은 녹취 전사자료와 현장메모를 읽어나가면서 연구 주제와 목적, 연구문제에 대해 재고찰하여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하고, 인터뷰 참여자의 연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주제와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했다. 각 사례 간 공통적인 내용이나 단어를 찾고, 구체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비교한 뒤 그들의 이야기를 주제와 그에 대한 의미로 묶어 범주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묶어낸 주제와 의미들을 핵심 연구주제인 ‘여성 전문 장애인복지관 이용경험’을 중심으로 상위·하위 개념으로 배치하고 범주화했다. 자료분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와 참여자의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 연구자가 함께 인터뷰 녹음파일과 전사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주화 작업을 진행했다.

IV. 연구결과

분석 결과,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여성 장애인들은 남녀가 통합된 복지기관과 여성 장애인복지관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여성 장애인복지관 이용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앞으로도 여성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길 희망했으며 여성대상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여성 장애인복지관 이용경험을 중심으로 범주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분석결과 범주화

대주제	소주제
여성 장애인복지관의 경험과 의미	1) 알음알음 알게된 세계
	2) 여성장애인 간의 공감대와 지지의 공간
	3) 남성장애인의 시선과 접촉으로부터 자유한 공간
	4) 위협과 불쾌감으로부터 자유한 공간
여성 장애인복지관 이용을 통한 변화	1) 삶의 활력을 얻음
	2) 양육부담의 감소
	3) 가족 및 부부관계 증진
	4) 세상에 대한 기여와 자부심이 생김

여성장애인의 복지사업 이용 어려움	1) 남성중심적 기관운영
	2) 장애유형· 정도에 따른 제약
	3)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고려부족
	4) 서비스 양 부족 및 운영시간의 제한
여성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바람	1)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2) 일하는 삶에 대한 욕구
	3) 출산·가사·양육에 대한 지원욕구
	4) 같은 지역에 사는 또래 여성장애인 간 자조모임 활성화
	5) 긴급지원 및 안전귀가 욕구

1. 여성 장애인복지관의 경험과 의미

가. 알음알음 알게 된 세계

인터뷰 참가자들은 주변 지인을 통해, 다른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연계를 통해 여성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게 되었다. 여성 장애인복지관에 온 이유는 참여자별로 다양했지만, 여성장애인들은 주로 생활·자녀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직업재활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복지관을 찾았다. 참여자들에게 여성 장애인복지관은 알음알음 알게 된 새로운 세계였다.

어, 저는... 교회에, 그 집사님이 구청을 다니는 분이예요. 이제 구청에서 일하는, 복지관이 있으니까 한 번 가보라고... 이렇게 해서 왔어요. (참여자 4)

저는 여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처음은 아닌데, 여성장애인 이런 거 자체가 있다는 게 드림스타트에서 연결을 해주셨어요. (참여자 5)

저는 성프란치스코 복지관에 온지는 거의 한 10년 다 되어가요. 근데 어떻게 왔느냐면,

말도 좀 어눌하고 귀도 안들리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게 꺼려졌어요. 동사무소에서는 그 뭐지, 보건소. 보건소가 차가 온다고 근데 제가 이야기 했어요. "나는 그냥 있고 싶다. 나가봤자, 나만 천덕꾸러기같이 그러니까... 나는 살고 싶지가 않다." 그랬어요. 나가봤자 좋은 데도 없고, 애들... 자식도 있고..... 그래도 장애인복지관을 알아봐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알아봐달라. 그랬더니만은, 여기를 소개시켜주고 그랬더니 여기가 낙원이에요. 너무 좋아요. 재미있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나. 너무 활기차고. 여기 기관에 오니까 이제 좀 살 거 같아요. 내가 너무 그런 생각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에이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웃음). (참여자 10)

복지관을 이용한 거는 아이가 태어났으로써. 신랑이 지체가 좀 심하고 저는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중략) 홈헬퍼라는 걸 알게 되어서 동사무소 통해서 이쪽으로 홈헬퍼를 해가지고. 아이가 한 돌 쯤 무렵에 처음 복지관을 이용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즐겁게 하고 있어요. (참여자 13)

나. 여성장애인 간의 공감대와 지지의 공간

인터뷰 참여자들은 여성 장애인복지관을 여성장애인 간 공감대와 지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표현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경험은 비장애 여성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함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성장애인들 간 정보공유나 공감, 지지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복지관이나 남성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들이 같이 교육에 참여해도, 여성장애인들이 겪는 그런, 애로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공감할 순 없잖아요. 근데 여성장애인 사업이 있다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서로 공감할 수 있는.(중략) 건강 문제나, 갱년기 전에 이런 거나, 아이들 자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성장애인 복지관에서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참여자 3)

여성장애인(프로그램)을 하면서 일반인하고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쳐다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다른 일반인하고 같이 이저를 하면, 되게 위축이 돼요. (참여자 5)

심리상담이라던지 자기이해교육 이런 인권교육이 있어서 강사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강사로 활동중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사회활동을 어떤 식으로 살아 가는게 맞는 건지 대한 피드백을 여기서 많이 받게 되었어요.(중략) 이런 삶도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참여자 6)

또한 참여자들은 여성 장애인복지관을 자신과 연령대가 비슷한 여성장애인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다른 기관의 장애인 이용자들이 대부분 고령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용자 간 친밀한 관계형성이 어렵고, 프로그램 참여에 흥미를 느끼기 어려워했던 것과 달리 여성 장애인복지관에서 30-40대 여성장애인 끼리 교류한 경험을 의미있게 생각했다.

구청에서 장애자들 위주로 하는 컴퓨터를 했는데, 거기는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많다보니까... 대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략)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제 또래를. 제가 이제 올해 사십인데, 또래가 없어요. (참여자 5)

여기 오기 전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체육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노인들 같은 경우가 많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 때 제가 30대였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노인... 그래서 가서 대충 막하고(웃음) (참여자 4)

다. 남성장애인의 시선과 접촉으로부터 자유한 공간

참여자들은 여성 장애인복지관을 남성장애인과 함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생기는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남성장애인들과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경우, 남성장애인의 시선을 받거나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불편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참여자 5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내 장애인 조직을 형성하기 위해 모인 장애인이 모두 남성이어서 참여가 꺼려지고 불편했던 경험을 이야기했고, 참여자 9는 남성장애인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외적인 모습에 따라 대우가 달라져 신경써야 하는 불편함을 이야기 했다.

제가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이제 필라테스 수업을 했는데, 남성분들이랑 같이 했어요. 근데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데, 물론 그 분도 시각장애인이지만, 시각장애인들이 보이는 정도가 천차만별이니까. 그리고 운동이란 게 하다보면 막 몸이 되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건 같이 여자들끼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참여자 1)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장애협회를 만들 건데,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려고 딱 봤는데, 다 아저씨들인 거예요. 다 남자 분,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안 맞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놀러가자고 연락 오고, 그러면 어우 아니예요, 하고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보면 여성 장애자들이 없어요. (참여자 5)

중증이다 보니까 남자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스킨십 이런 거를 하거든요. (중략)아픈 아이인데도 유독 예뻐 보이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럼 가서 만지고.. 그런 게 내가 여자애를 키우는 엄마로써 되게 안 좋죠. (참여자 17)

라. 위협과 불쾌감으로부터 자유한 공간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여성 장애인복지관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차별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공공장소에서 남성으로부터 위협이나 불쾌한 시선을 받기도 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외적 아름다움’을 강요받거나,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를 받는 경험도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지. 복지관에는 남성분들 계시니까 아 뭐 우리가 여성주의나 딱 이런 얘기를...본인들도 알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지 아니라고 너희들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러시고...저희들 입장에서는 여성이라는, 장애인이라는걸 두 가지를 받게 되니까 눈빛 진짜 안 좋거든요. (참여자 6)

고 1때도 1학년 친구들하고 계속 괴롭혀가지고, 남자애들이... [남자애들이 어떻게 괴롭혔어요?] 막 졸졸 따라다니면서 놀리고 그래가지고. (중략) 아예 반까지 들어와요. 반이 이제 1·2학년은 남녀 따로 있어요. 근데 여학생 반까지 들어오면서 막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억 때문에 따로 있는 게 편하다는.] 네. 아빠도 그런 걸 알고 있고 해서 남녀복지관보다 그냥 여성복지관을 다니는 게 낫겠다고. (참여자 15)

남자들은 활개피고 돌아다니는데 여자들은 쪼그려 앉아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런 게...그때도 그런걸 잘 몰랐어요. 그냥 그렇구나. 저렇게 앉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나름의 질서 속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걸 보니까. 이런 게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 때의 자유로움.. (참여자8)

그리고 남녀공동복지관 가면 아무래도 옷도 막 구질구질한거 입고가면 업신여겨요. 업신 여기고..좀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깨끗이 하고...화장도 하고...이렇게 나가고 싶지, 나는 구질구질하고 이런거...(싫어해요.) (참여자 9)

2. 여성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을 통한 변화

가. 삶의 활력을 얻음

참여자들은 여성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성취감을 느끼며, 삶의 활력을 얻고 있었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가사와 양육에서 잠시 벗어나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중도장애인의 경우 다양한 장애인을 만나며 자신의 장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장애정체감의 형성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다.

처음에는 죽고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면 뭐해. 내가 장애인이야? 나 아니야. 맨날 부인하고 그러다가 또 깨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살아가다보니까

살게 되더라고요. (중략) 지나가다가 이런 장애인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여성복지관에)갔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우울증이 없어지고. (참여자 8)

복지관 나오면서... 나는, 나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니까 너무 많고.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많고. (중략) 진짜. 이런 기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참여자 9)

집에 있을 때는 막 퍼져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좋아요. 집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되었나 싶고 진짜 우울했어요. 진짜 살맛이 없었어요. 갑자기 막 병신이 되니까... 하루아침에... (중략) 지금은 좀 좋아요. (참여자 9)

나. 양육부담의 감소

참여자들은 여성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며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을 덜게 되었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주로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 발달지원, 심리·정서지원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복지관에서 기존에 알지 못했던 다양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준 것에 대해 매우 만족했다.

제가 여기서도 애들, 막내를 학습지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심리 검사까지 받고 심리센터까지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혜택을 줬는데,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참여자 5)

저는 저희 아이가, 여기서 성프란에서 대학생 멘토 서포터즈 지원을 받았어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아이가 공부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그 많은 지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참여자 3)

특히 참여자들은 서비스들을 가정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크게 만족했는데, 이는 가정에서 이용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어린 자녀와 함께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는 언어발달지원 사업 이용하고 있고, 그게 이제 집에 방문해갖고 애들 독서지도나 공부활동 해주는 건데 그거 하고 있고. 타 복지관에서는 다 복지관을 방문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선생님 파견이라. (참여자 2)

다. 가족 및 부부관계 증진

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복지관 이용은 부부 간, 가족 간 관계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배우자를 이해하고 부부 간의 관계가 돈독해진 경험도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장애인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여행프로그램 또한 긍정적 인 평가를 받았다.

저는 2년 전인가 부부 수업을 했었어요.(중략) 몰랐던 사실을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알게 됐던 것 같고. 아무리 부부라도 말을 안 하고 이런 데서라도 소통하니까 나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참여자 13)

복지관에서 가족 나들이 1박2일 캠프라던가 생태 숲 이런 데에서 아이들이 찍은 사진 보여주는 그런 것도 하고, 레크리에이션 그런 것도 그런 가족 나들이가 좋았는데. 그런데 저도 한 두 번인가 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장애인 가족들이 여행을 잘 못 가잖아요. 차량도 그렇고... 그런 활동이 좋았던 것 같네요. (참여자 13)

라. 세상에 대한 기여와 자부심이 생김

여성 장애인복지관에서의 경험은 여성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또한 확장시켰다. 참여자들은 기존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자신이 활동하는 사회의 범위를 넓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다른 장애인들과의 여가생활,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 위한 도전, 봉사활동 등 참여자들은 자신의 활동이 갖는 사회적 기여를 느끼고, 이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제가 원래 집에서만 있거든요. 나오질 않았었어요. 근데 올해 처음 불링동아리를 여기서 인제,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 이제 나오면서, 애들 키우면서 여태 뭐라고 해야 하지, 당당하지 못했다고 해야 하나? 장애가 있다 보니까. (중략) 어울릴 수가 있다는 게 제가 이제 소통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창피하지가 않은 거구나. (참여자 5)

여기가 없었다면 그냥 집안에서 동네에서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곳, 내가 가고자 하는 곳만 다녔을 텐데 (중략) 그래도 내가 가서 무언가를(장애인식개선 강사) 하고 있구나 사회변화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참여자 6)

제가 또 다문화 가정에도 관심이 있어서 몽골에서 온 청각장애인 여성을 또 돕고 있는데. 그렇게 연계가 되어서 도움을 주는 입장도 되었고, (참여자 12)

여성장애인복지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정리하는... (정리전문가)동아리가 있어요. (중략) 오랫동안 가족 봉사 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니까... 참 좋은 거 같아요. (참여자 4)

제가 말벗이라고 해야하나,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할머니들하고 대화하고. 일주일에 한 시간 반 방문해서 같이 말벗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할머니들이 가면은 “아이고 어서와, 내 딸이야” 하면서 좋아하시고 저 역시 어머니처럼 “어머니 저 왔어요” 하면 되게 반가워하시고, 내가 조금 늦으면 왜 안 오냐고 걱정돼서 전화오고 그제 참 제가 봉사하는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저를 그래도 필요로 하는구나, 싶었어요. (중략) 처음엔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안한다고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탐장님이 ‘한 번 해봐라. 사람이 정체가 하면 안 된다. 기죽지 말아라.’ 이렇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참여자 10)

3. 여성장애인의 복지사업 이용 어려움

가. 남성중심적 기관운영

여성장애인들은 남녀통합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남성 중심적 기관운영을 꼽았다. 남성중심의 운영이 일반적인 남녀통합 장애인복지관은

여성장애인만의 특수한 욕구나 실제 여성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양육부담, 가사의 어려움 등을 깊게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인 부부 역할 및 가사분담의 변화로 복지관에서 자녀양육과 가사 관련 사업을 성별구분 없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들은 현실적으로 여전히 여성이 자녀양육과 가사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이야기 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장애인복지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고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복지관을 신뢰하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 자체가, 사실은 물이 위에서 흐르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예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성 중심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것과, 그냥 전체를 놓고 구상하는 게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니까 저희 (성프란치스코)복지관에 계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 남자선생님이라도 마인드 자체가 벌써 다르거든요. (중략) 근데 일반복지관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남성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프로그램은 생각조차도 못해요. 뭐, 자녀양육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있지만, 약간 여성 중심으로 이렇게 가진 않죠. [가사, 자녀양육 관련해서도 장애인 성별을 구분해서 프로그램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오면 그렇진 않잖아요. 실제로 여자가 하는 거고... (참여자 1)

여성을 위한 시스템들로 돌아가는 것들이 저에게 편안함을 줬어요. 어떻게 앉고,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자체가 아 여성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아 여성에게는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나 고민해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외려 더 여기에 맡길 수 있겠구나. (참여자 5)

기존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 대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하는 여성장애인의 수가 적어 프로그램을 통합하거나 폐지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여성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프로그램 이용자가 모두 여성장애인이기 때문에 욕구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게 거기는 대단위로 하니까 숫자 면에서 저희가

밀리기 때문에 거기서도 사업을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할 거야~ 특화사업을 꼭 할거야 라고 하지만 이제 횡수를 거듭하고 수요를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결국은 폐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중략) (이용자가 적은 사업들이)통합됨과 함께 흐지부지 되거든요 이 사업이 그냥 두루뭉술해져버리는.. 잊혀지지 않을까하는... (참여자 6)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은 잘 없이 저희는 이래서 못합니다. 딱 끝나요. 여성장애인이 꼭 아니더라도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너무 소수라서 안해주는.] 통보식으로 딱 끝나버리는 거요. 여기는 소수의견도 다 수용이 되는게 장점인거요. (참여자 6)

나. 장애유형 · 정도에 따른 제약

참여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과 함께 복지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어려움을 경험했다. 특정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기관에서 다양한 장애유형의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성 전문 장애인복지관은 한곳으로 유일하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제한적이고 프로그램을 장애유형별로 구분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었다. 여성 전문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지만 자신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장애 종별 전문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눈이 특별히 불편하지 않은 분들이란 스티디 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이용을 하고 지도 요즘 PT받는 거나 이런 것들 다 해봤거든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그런 것도 해보고 뭐... 하여튼 뭘 배운다고 할 경우에는 같이 눈이 나쁜 사람들끼리 하는 게 편하기는 해요. (참여자 2)

만들기를 해도 몸을 쓰는 운동을 해도 농아인들은 항상 빠르고 지체장애인들은 몸을 쓰는 부분에서는 느린데. 또 소리를 들어서 빨리 진행하는 부분은 농아인보다 지체장애인이거나 시각장애인들이 더 빨라요. (중략) 가끔 연락이 와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고. 그런데 저희는 소통하기 위해서 수화통역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화통역사 있냐고 물어보면 복지관에서는 없다고 하니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참여자 11)

또한 장애유형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되거나, 참여하더라도 원활한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는데, 일부 참여자는 중증장애인 이용자 대상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눈높이가 좀 있잖아요. 증증이 있고, 그 중에서도 상급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깐. (중략) 일대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한 분에 애들 세 명 이렇게 하시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일대일이 아니어도 증증 애들도 할 수 있게끔. 안 되니까 복지관을 다니는 건데. (참여자 17)

다.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지원부족

참여자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기관 및 사업이 있어도 장애인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충분한 장애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경험을 말했다.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기관 측에서는 이를 당황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기관이 아닌 경우 비장애인 중심의 운영과 기관 종사자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장애인 이용자 지원에 대한 고려와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참여자들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여성대상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상담을 해도,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같은 거를 아예 생각해본 적 없는 거 같아요. (중략) 그래서 별 거 아닌 건데도, 저희는 당연히 요구하는 건데 보시면, “어우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무리한 걸 요구하나? 할 만큼,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은 오히려 고마워하는 분위기? 그래서 아우, 이런 분위기면 안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중략) 상담을 해봤다가, 전화만 해보고 안 되니까 끊어버리고. (참여자 1)

라. 서비스 양 부족 및 운영시간의 제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망라하고, 여성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운영시간 등을 한계점으로 꼽기도 했다. 서비스 양이 적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

전화를 했더니 프로그램 벌써 꽉 찼다고..안 된다는 거예요(중략)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못 받는다고. (참여자 8)

집에 와서 해주는 건 그렇고... 영등포 복지관은 그 있는데...사람이...실제가면 한 2년 기다려야 되고.... (참여자 9)

또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평일 낮 시간에 집중되어 있어 일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평일 낮 시간 뿐만 아니라 평일 저녁, 주말 프로그램 이용욕구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운영시간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의 개인 일정에 맞춘 서비스 이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나도 못해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저는 안 맞았어요. 이 일자리를 하다보니까 오후시간이 거의 다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제가 딱 일하는 시간이랑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저한테 계속해서 와서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저도 하고 싶어요. (참여자 14)

주말프로그램은 어찌다 연간프로그램 한두 개, 크리스마스 시즌 맞춰서 하나, 이런 식으로 밖에 없다보니까 고런 것만 애랑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죠. (참여자 1)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물리다보니까 저는 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거죠. (참여자 7)

4. 여성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바람

가.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여성장애인들은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는 크지만, 지역 내 건강관련 시설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장애인 대상 이용시설이 아닌 경우,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들은 장애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고, 장애인의 이용을 꺼려하는 것을 꺼려했다. 최근 보건소에서 장애인 대상 건강·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이 짧아 여성장애인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그 외, 경제적 부담, 비장애인의 시선 등으로 인해 건강관련 시설의 이용을 어려워했다.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려면 보이는 사람이랑 같이 해야 되거든요. 집근처에서 하려면 그러면 그 동작을 다 설명을 해줘야 하고, 선생님이 너무 난처해하면서 진짜 곤란하다는 듯이 그래갖고 제가 몇 번을 시도해봤다가... 장애인 할인제도가 있고, 구민지역센터에서 할인이 되면 뭐해요. 어차피 서비스를 못 받는데 할인 안 받고 안하는 데 낫지. (참여자 2)

그리고 솔직히 장애 있으면요, 헬스장 가는 것도 못가요 그것도 사치예요 그것도 사치라고. 그 PT 받는 돈도 엄청나고, 그리고 쳐다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운동 하는 게 제일 좀 불편해요. (참여자 5)

장애인들은 헬스클럽엔 못가잖아요. 런닝머신도 못타고 위험하다고 안 된다 그리고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뭐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대요. (중략) 운동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하려고 테스트로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것도 짧게만 하고 끝내더라고요... (참여자 13)

일부 참여자는 건강관련 프로그램만을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 보다 동료 여성장애인들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건강지원사업 운영방법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직접 활동을 지원하거나, 지역 내

공간을 제공하여 소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건소를 가려면...사람이 너무 많고...순서를 기다려야 되고...[여성장애인복지관은 우리가 우선순위니까...] 여성이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접근성이 보건소보다 복지관에서...복지관에 온 상태에서 이것도 받고 다른 프로그램도 받으면서 사회화가 될 수 있는데 보건소를 진짜 순차적으로 들어갔다 예를 들면 15분 딱 하고 집에 가버려야 돼요.(참여자 6)

그니까 집에 와가지고 꼭 기구가 있어야지 운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바른 스트레칭을 가르쳐줄 수 있고, 좀 이제 몸도 건강하고 미적으로 예쁘면 더 좋고 그런 걸 좀, 여성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출산 이후에 망가진 몸도 관리해주면 좋고.. (참여자 2)

그리고 방문이 아니어도 장소를 진짜 대여해주는 것도 너무(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1)

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상생활 건강과 장애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를 얻고 싶어 했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 노화 등으로 인해 장애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방법 및 건강관련 정보를 전문가나 선배 여성장애인에게 얻기 원했다. 또한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 외부 병원에서 이용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큰 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참여자도 나타났다.

소아마비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내가 뛰어다녔어 이려시지만 생애주기별로 노화가 오게되고... 그분도 처음에 뛰어다니셨대요. 목발 짚고 날라다니셨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전동휠체어를 타게 되는 그 과정이 다 똑같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전문스럽게 관리하고 알려주는 그런게 있으면 좋는데, 선배들의 이야기라던지 아니면 의료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복지사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가면서 장애인들이 임신 출산 이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손을 덜 쓸 수 있고 그리고 활동지원서비스도 원만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해서...왜냐하면 저도 알려주신 건 기관이거든요. 자꾸 그렇게 해주셔서 몸 관리를 좀 할 수 있게.. (참여자 6)

요리를 해도 얼마만큼 영양가가 있는 요리인지 대충하는 건지 막하는 건지 그런 게 있잖아

요. 이왕이면 요리를 할 때 보양식이든 충분히 영양가를 줄 수 있는 요리를 해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 11)

보통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자세도 안 좋으니까 어깨 등, 그런 데가 안 좋잖아요. 대다수가요. 도수치료 하러 가면 정외과 너무 비싸고. (참여자 13)

나. 일하는 삶에 대한 욕구

여성장애인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았다. 여성장애인에게도 일하는 삶은 기쁘고,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수급권 유지를 위해 취업을 포기하고 있었다. 여성장애인들은 수급권을 포기할 만큼 높은 소득을 만들기 어렵고, 직업을 갖더라도 강사와 같은 소수 직종 외에는 근로소득이 책정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다.

안돼요. 신랑이 별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중략) 수급자들은 이제 너무 까다로워서... (참여자 5)

4대 보험 관련 없는 강사파견이나 뭐 이런 걸로 연결해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중략) 그러니까 작든 크든, 제 일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인데. 그런 걸 찾아내 버리잖아요 정부에서. (참여자 2)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별면 소득신고를 해야 돼요. 이제 6인 가족이면요, 189만원이에요. 정부에서 정해놓은 게, 6인이 189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으면 거기에서 만약 생계를 포기하는 거죠. 넘고 하면 240만원 까지 별면, 다른 거 주거비나 애들 교육비, 생계비도 포기하는 거예요. (참여자 5)

일은... 하고 싶는데, 저도 수급자라 선택 하기가... 탈락될까봐. 그래서 아직 찾아볼 생각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일해서 그만큼 기대를 못 미칠 것 같아요. (중략) 4대 보험 안 들어간 걸 알면 하고 싶어요. 수급만 탈락 안 된다면. 저는 신랑을 내보내고 싶은데, 그런 걸 몰라서 못 내보내고 있어요. (참여자 13)

여성장애인들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근로능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일자리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되어 교육을 받은 장애인의 직업전문성과 경쟁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자 6의 경우, 여성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경험이 있는데,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었다고 이야기 했다. 참여자 14의 경우 장애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직업을 연계해야 하고, 효과적인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수님들이나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었죠. 정말 신랄하게 딱딱 짚어주셔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딱 하기 전에 여기서 제대로 두드려맞고 나가니까 나갔을 때 이게 훨씬...그 때 혼나길 잘했구나. 지금 나와서도 이렇게 힘든데, 그 때 좋은 말만 들었더라면 아마 자괴감 많이 들고 아마 그만뒀을텐데. 그 때 정확하게 몇 번에 걸쳐서 말을 해주셨어요. (참여자 6)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하죠. 그런 분들에게 맞게끔, 우리 장애에 맞게끔. 일을 주면 나름대로 다 하잖아요. (중략)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자격증 따는 것까지 짜고 그게 일자리까지 연결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참여자 14)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근무시간이 길지 않고 노동 강도가 적절하며, 휴게시간이 충분한 일자리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아주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몸이 좀 약해요. 이 몸을 가지고 일하기에는 가장 최상의 조건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만족하세요?] 예를 들어, 한 시간 동안 일을 하면은 그만큼 또 쉴 수 있어요. 컴퓨터로 계속 시간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시간 조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 (참여자 11)

저는 그냥 만족해요. 왜냐하면 너무 내 몸에 지나치게 힘이 든다면 못하겠지만.. 제 시간하고 나머지 4시간 쓸 수 있고, 가서 강도 높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맞춰서 해주시는 것 같아서. (참여자 14)

다. 출산·가사·양육에 대한 지원욕구

여성장애인들은 출산, 가사, 양육 지원을 가장 필요로 했다. 특히 전문성이 보장된 산후조리서비스를 원했는데, 기존에 공공영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산후조리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이 한정적이고, 서비스 만족도 역시 높지 않아 개선을 필요로 했다.

둘째 때. 제가 둘째 딱 출산할 때 생긴 제도여가지고...(웃음) 한 삼년정도 받았는데, 그것도 저는, 그게 원래는 되게 많이 지원되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왜냐하면 너무 대기자가 많고, 나는 그나마 장애에서 경미하다는 거예요. (참여자 1)

(보건소 산후조리서비스는)일주일에 3시간씩 해 갖고 한 달에 60시간도 안했던 것 같고. 근데 비추미(삼성생명)는 아홉시에 오셔 갖고, 여섯시 퇴근인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쪽. (중략) 진짜로 정말 너무 완벽한, 장애인한테도 뭐 새터민한테도 진짜 맞춤형으로 해주시고, 장애인이라는 걸 보고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시지도 않았고 정말 숙련된 분들이 오셔 갖고... (참여자 2)

또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은 비교적 많지만, 장애인 부모를 가진 아동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고 이야기 했다. 특히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학업지원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났으며, 여성장애인복지관 내에 이용자의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를 필요로 했다.

수급자 여부(만 고려해요). 엄마아빠 장애인인 거 이런 거랑 관계없고, 없고 수급자 사정의 여부와 오로지 실력으로만 하는 건데... [부모의 장애 유무로 고려해주는 건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참여자 2)

그래서 약간 장애부모의 비장애인 자녀를 교육시킬 때 진짜 어려움이 많은 거 다들 아실 거잖아요, 이미 키우셨던 분들도 이해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교육비를 뭐, '사교육 시장을 없애자' 취지는 좋지만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수능이 없어질 것도 아니잖아요. (중략)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집 근처 학원을 이용할 수 있는(바우처사업이 필요해요) 절실히

요. 진짜 너무 절실히 필요해요 지금. (참여자 2)

키울 때는 엄마가 힘들 것 같아요 놀아주지도 못하고 (중략) 가정일이든 뭐든 다 힘들어하고 신랑한테 해 달라 하면 짜증내고, 여성장애인들이 가장 힘든 게 가사일이나. 아이 양육하는 게 가장 힘든 거 같아요. (참여자 13)

애들이 자주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왜냐하면 저희 애들이 좀 심하게 그래가지고 여기 대기실이 너무 좋아요. 근데 대기실에서 한참 기다리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주차장으로 뛰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16)

라. 같은 지역에 사는 또래 여성장애인 간 자조모임 활성화

여성장애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또래 여성장애인들과 교류하고 싶어 했다. 참여자들은 여성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성 장애인복지관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과, 지역 내 여성장애인 간 네트워킹의 부재를 느꼈다.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웃 여성장애인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으며, 지역 안에서 여성장애인들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모임을 갖기를 원했다.

뭐, 그 모든 모임이 사실은 다 지역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종별복지관이 나 이렇게 멀리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 지역에서는 없기도 하고, 있어도 가면 너무 뻘컘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중략) 그러니까 무슨 교육프로그램이 하나 있어, 그래도 막 검색하면 결국은 두 시간 쯤 걸려도 거길 가게 되는 거예요. (중략) 그런데 요런 게 동네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참여자 1)

저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에 사니까, 은평구에 어떤 장애를 가진 어떤 엄마들이 사는지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복지관에 왔는데, 우연히 집 근처라고 그러면 되게 반갑거든요. (참여자 2)

근데 저도 금천구인데, 없어요. 여기 금천구거든요, 여기도요?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이요, 없어요. (참여자 5)

아, 아까 (복지관에서)만난 분도 금천구에서 오셨는데 서로 모르시더라고요.(참여자 1)
(웃음)모르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참여자 3)

여성장애인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여성장애인복지관의 역할로서, 권역별 여성 장애인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사업의 중복을 고려한 특화사업을 계획하는 것을 제안했다. 즉, 지역의 여성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분배하여 여성 장애인복지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지역 여성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모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했다.

성프란이 컨트롤 타워가 되가지고 특화사업을 몇 개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모아서 권역별로 관리체계를 해주시면... 컨트롤 타워가 하나 딱 있어서 중복없이 해주면...[여성장애인사업을 하면 여기서 운영의 노하우라던가 그런걸 전해줄 수 있겠네요.] 성프란 치스고 복지관의 사업 중심이 살짝 흔들리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성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여기 하나라도 있어서 여성장애인특화사업을 고민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걸 고민할 수 있는 복지관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6)

학령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교류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했다.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들 간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의 네트워킹 필요성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참여자는 ‘포레지원사업’을 제안하며 비장애인 학부모와 보다 안정적인 네트워킹이 가능하기를 원했다.

애기 키우면서 힘들었던 거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습적인 거를 같이 고민해볼 수도 있고,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지를 대해서 의논해볼 수도 있고,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걸 팁을 줄 수도 있고. (참여자 2)

일단 학교에 갔을 때 장에 엄마들이 학교 그 학부모들이랑 소통할 때, 그 어려움도 진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자존심 구겨지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좀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정말...(좋겠어요.) (참여자 2)

그런데 그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게 뭐냐면, 아이의 친구 엄마랑 친해지니까 완전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전화가 와요. '언니 같이 갈래?' 그러면 활동지원인 선생님은 없어도 돼요. 함께 가고, 그것도 또 같은 반이야. 그러면 가서 써줄 거 다 써주고 (중략) 활동지원인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포레엄마들을 멘토·멘티도 좋고, 아니면 그냥 포레지원단 이라던가. 그런데 그 친구가 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요런 사업들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참여자 1)

마. 긴급지원 및 안전귀가 욕구

여성장애인들은 생활 속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긴급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의 주거지나 개인적인 상황(1인 가구거나, 남성 가구원이 없는 경우 등)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에 긴급지원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원인력이 사회복지사 등 신원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하고, 여성장애인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오시는 분들의 신원이 명확하다, 라는 걸 알면,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나의 대한 정보 유출이잖아요. 이 집에 시각장애인이 사는데, 여기 가봤더니 '남자가 없어.' 라던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누출이 되더라도 안전할거라는 단서가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럼 선생님들은 이런 긴급 돌봄에 대한 욕구는 좀 많이 있으세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실수로 전동이 깨졌어! 허... 그럼 순간 완전히 멈추거든요? 계속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순간 발을 다치니까. (참여자 1)

또한 긴급지원서비스에 여성장애인 귀가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했다.

여성장애인들은 휠체어나 케인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여성장애인을 표적으로 하는 범죄가 잦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특히 범죄피해 가능성이 높은 늦은 저녁시간대에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그 저는 안심귀가서비스 같은 거... 이게 여기에 좀 해당이 됐으면...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엔 케인을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신분노출이고, 타겟이 되거든요, 범죄에. 그래서 시각장애인여성분들이 밤에 케인 짚고 가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납치당하기도 하고 성추행도 되게 많이 당하세요. 그래서 진짜 택시타고 집 앞에 내리는 것도 일반 바우처 택시를 타도 되게 두려워해요. 집 앞에서 안 내리고 일부러 조금 떨어져 있는 데서 내리세요. 그리고 택시 간 다음에 들어가세요. 그런 분들 많아요. (참여자 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분석결과 여성장애인의 여성 전문 장애인복지관 이용경험을 중심으로 여성장애인이 느끼는 여성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의 필요성, 한계, 개선방안을 알 수 있었다.

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필요성부터 살펴보자면, 여성장애인들에게 여성장애인복지관은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여성장애인복지관에서 그들은 공감과 지지, 사회적 억압으로 부터의 자유를 경험했다. 여성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에 노출되고, 사회 속 '주류'로서 활동한 경험이 없던 여성장애인들은 알음알음 찾아온 여성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들의 욕구를 자유롭게 이야기 하며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또한 여성장애인들은 여성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삶의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장애인 동료들을 만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과거 우울했던 감정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삶의 활력을 얻었다. 가족차원으로는 여성장애인이 가지고 있었던 양육 및 가사에 대한 부담을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덜어낼 수 있었고, 부부관계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사회적 차원

으로는 여성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문화·여가활동, 취업프로그램,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 일원으로서 자기 효용감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힐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성장애인들이 복지사업 이용에 어려움도 겪고 있었다. 그 이유는 기관의 시스템과 서비스 운영방식, 인식부족 등 때문인 것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존의 남녀통합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남성중심의 시스템과 여성장애인의 욕구를 소수로 두는 운영방식으로 인해 여성장애인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없었다. 장애인 대상 복지기관이 아닌 경우, 여성복지 사업운영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여성장애인을 배제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또한 여성 장애인복지관이 한곳이기 때문에 이용자 다양한 장애특성에 대한 고려가 어렵거나, 필요한 서비스의 양이 부족해 대기 시간이 길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고정적·제한적인 문제점도 나타났다.

연구결과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요구하는 개선방안은 다양했다. 건강한 삶, 일하는 삶을 꾸리기 위한 지원을 원했고, 출산·가사·양육에 도움받길 원했다. 또한 이웃에 사는 또래 여성장애인과 지역에서 어울리고 교류하길 원했으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보호받길 원할 때 안전한 누군가의 도움을 얻고자 했다. 이는 여성장애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또한 필요로 하는 지원이었다. 건강을 유지하고, 일 하는 기쁨과 성취를 누리며, 가족·이웃과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여성 장애인복지관 이용경험을 알아보고 여성 장애인복지관과 여성 대상 복지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제 여성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여성장애인들이 이용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용성, 효과성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기관의 운영방식과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깊게 고민하는 기관 전반에 대한 만족이었다. 또한 여성장애인에게 새로운 도전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여성장애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 종사자들은 여성장애인 개인과 가족, 그를 둘러싼 사회까지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에게 여성장애인 복지 욕구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은 일반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을 소수로 대하며 사회에 존재하는 불편함이나 차별대우 등이 복지관에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장애인복지관 안에서도 재현되는 것이다. 향후 장애인복지관은 사업내용과 구성, 방향에 대해 고민할 때 지역내 여성장애인이 보다 역동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 장애인복지관은 단순히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장애인 당사자와 그를 둘러싼 사회를 변화시키고, 확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임을 기관에서는 알아야 한다. 향후 같은 경험을 가진 여성 장애인들이 공감대를 나누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도록, 자조집단 만들기나 네트워크 사업 등 각 복지관별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여성 전문 장애인복지관이 전국 2개소에 불과하고, 일반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 대상 사업이 소수인 것을 고려했을 때, 여성장애인 대상 복지사업의 양적, 질적 확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여성 장애인복지관의 증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면 좋겠지만, 다른 복지기관에서 여성장애인의 존재와 그들의 특수한 욕구들을 사업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복지 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이겠지만, 사업운영에 다양한 장애유형·장애정도·이용자의 연령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대를 평일저녁, 주말까지 확장하고 권역별 서비스 공간을 마련한다면 이용을 원하는 참여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는 인터뷰 참여자의 구성에 다양성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의 장애유형은 주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장애로 구성되어 내부 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진 여성의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또한 인터뷰 일정이 평일 낮 시간대인 관계로, 직장을 다니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의 참여가 어려웠다. 또한 연구참여자 집단을 장애유형별로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욕구와 경험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게 되었고, 복지관의 역할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

데에도 한계로 작용하였다. 향후 후속연구에는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승원. 2015. “기혼 여성 지적장애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0권 2호: 117-126.
- 김용득. 2017. “장애인기관의 서비스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제도 안에서 제도에 저항하기 -” 『한국장애인복지학』 37호: 33-56.
- 김지영, 최수형, 이권철, 이진국, 김강원, 최정규. 2018. 『장애인 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9. 『2019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서해정, 장명선. 2018.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 방안”. 『이화젠더법학』 제10권 2호: 177-211.
- 여성가족부. 2010. 『장애인복지관 여성장애인 프로그램 및 이용 현황 조사』.
- 윤재영, 장순욱, 안형진. 2017.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환경 변화와 대응 과제 : 서울 N복지관의 경우. 『한국사회복지교육』 37호: 89-113.
- 이주연, 최지훈. 2017. “전라북도 여성장애인 모성권 실태와 향후 과제”.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22호.
- 이준상, 임은자, 박애선, 김신국, 임윤용. 2017.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상북도,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재희. 2016. “헌법적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통한 사회적 차별의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 『안암 법학』 50호: 159-197.
- 전지혜, 이정은, 박시은. 2019. 『여성장애인 친화적 복지관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성프란치스코 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최선경. 2018.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장애인 모성권(임신과 출산, 자녀양육)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6권 12호: 97-107.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복지관현황, <http://www.hinet.or.kr>(검색일: 2020.03.01)
- Connelly, M., Clandinin, D.J.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Thomas L, MacMillan J, McColl E, Hale C & Bond S. 1995. *Comparison of Focus Group and Individual Interview Methodology in Examining Patient Satisfaction with Nursing Care*. *Social Sciences in Health* 1: 206-219.

Rabiee, F. 2004. "Focus-group Interview and Data Analysis." *Proceedings of the Nutrition Society* 63: 655-660.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Female Disabled People's Welfare Centers

Sieun Park* · Jihye J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using welfare cente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o suggest ways to promote welfare program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applied and a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by recruiting 17 women with disabilities who had experience using women's welfare centers through intentional sampling. As a result, the women's disability welfare center was not just a service for women with disabilities, but a space for empathy and support from each other and freedom from social oppression. In addition, women with disabilities attending welfare cente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are experiencing positive changes at the individual, family and social levels. On the other hand, the general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has problems with the system and operation tha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needs of women with disabilities. The optimal space for meeting the needs of women with disabilities was women's welfare center. If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professional welfare center for women with disabilitie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welfare service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by expanding support for health, occupation, childbirth, housework, and nurturing and promoting networking with women with disabilities in their local communities.

Keywords: Women with Disabilities, Female Disabled People's Welfare Centers, Experiences of Welfare Center, Role of Welfare Center

투고일: 2020.02.13. 심사일: 2020.02.17. 게재확정일: 2020.03.09.

* MA studen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Incheon National University